

『五經百篇』 수록 『詩經』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higyong* which is Included in the *Ogyeong-Baegypeon*

윤 현 정 (Yoon, Hyun Joung)**

◁ 목 차 ▷

1. 서론	3.3 『오경백편』 수록 『시경』의 인용 분석
2. 『오경백편』의 편찬	4. 결론
3. 『오경백편』 수록 『시경』 분석	[부록] 『시경』 목차 비교
3.1 『시경』의 개관	<참고문헌>
3.2 『오경백편』 수록 『시경』의 내용 분석	

< 초 록 >

본 연구는 正祖朝 親撰 『五經百篇』 제 3권 『詩』 수록 작품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을 통해 주제와 인용 양상을 고찰하여 작품 선별 기준을 추측해보고, 나아가 『오경백편』의 편찬 목적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을 지닌다.

『오경백편』은 문장의 正宗을 제시해야 했던 시대적 상황과 고문을 지향하고 주자학을 존승했던 정조의 문체관 및 초록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학문적 사상이 융합되어 행해진 ‘선본 편찬’이라는 배경에 의해 편찬되었다. 『오경백편』은 易經, 書經, 詩經, 春秋, 禮記 오경 중에서 99편의 글을 선정하여, 각 경서별로 한 권씩 총 5권이 한 帙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제 3권 『시』는 67편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양이 많은데, 유가에 있어서 ‘시’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정치적·사회적·외교적 측면에서 그 가치를 재조명 받아 반드시 익혀야 하는 경전인 『詩經』을 대상으로 선별하였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경』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였다는 점에서 『오경백편』의 편찬 목적과 선별 기준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오경백편』 『시』 수록 작품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먼저 『風』 160편 중 21편, 『雅』 105편 중 36편, 『頌』 40편 중 10편을 수록하여, 각각 13.1%, 34.3%, 25%의 비율을 보인다. 수록된 『풍』 21편의 내용은 주로 天子와 后妃의 덕을 찬미하는 내용, 어진 임금을 찬미하는 내용, 잘못된 정사를 풍자하는 내용과 의로써 군대를 일으키는 내용, 백성들의 농사일에 대해 노래한 내용, 병사들의 노고를 표현하고 주공과 성왕의 행적에 대해 서술한 내용 등이다. 『아』

* 본고는 성균관대학교 정보관리연구소 주관 2014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rkawkydy@naver.com)

접수일: 2016년 3월 7일 최초심사일: 2016년 3월 12일 심사완료일: 2016년 3월 25일

36편은 연회자리에서 불리는 대표적 시, 벗과 이웃 사이의 우정을 노래한 시,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들을 위로하는 시, 公卿大夫가 농사에 힘써서 종묘 제사를 받드는 과정을 서술한 시를 비롯하여 훌륭한 정사를 펼친 聖王들의 행적에 대해 노래한 시를 수록하였다. 『송』 10편은 성왕의 출생과 업적 및 말씀을 상세하게 서술하거나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살펴야 할 덕목을 서술하여 역사적,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를 수록하였다.

이를 ‘人倫’, ‘愛情’, ‘讚美’, ‘行蹟’, ‘諷刺’, ‘儀禮’ 등 6가지 주제로 분류해보면 ‘행적’ 주제의 작품이 27수로 40%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수록되었고, 그 다음으로 ‘인륜’, ‘의례’ 항목 순으로 그 수가 많았다. 여기에서 정조가 『오경백편』을 통해 성왕, 현인의 모범적인 모습을 제시하여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귀감으로 삼을 수 있게 하려는 교육적 의도와, 夏·殷·周 삼대시절의 성왕과 자신을 동일시하고자 한 정치적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수록된 작품들은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는데, 다른 경서에서 직접 인용되었거나 널리 쓰이는 고사의 원전이 되는 작품이라는 점이다. 그 인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문장의 형용을 목적으로 다양한 범위의 문체에서 폭 넓게 인용된 경우, 문장의 품격을 높이고 일반 문장과 차별화를 피하기 위해 인용된 경우, 유가의 학자가 자신의 주장을 개진할 때에 근거로 삼기 위해 인용된 경우, 유가의 성현으로 받들어지는 여러 인물들의 구체적인 행적을 서술하고자 인용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정조가 『오경백편』 『시』에 적용한 작품 선별 기준을 추측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범적인 인물상인 삼강오륜을 묘사하여 읽는 이를 교화시킬 수 있는 작품을 선별하였다. 둘째, 성왕의 행적을 서술하여 정조의 정치적 이상향을 제시하는 작품을 선별하였다. 셋째, 유가에서 성현으로 제시하는 인물의 행적을 서술한 작품을 수록하였다. 넷째, 경서에서 인용된 표현이나 문장의 형용을 위해 상투적으로 쓰이는 고사를 갖추고 있는 작품을 수록하였다. 즉, 정조는 오경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뽑아 노년에 반복하여 읽기에 편하게 하고자 『오경백편』을 편찬하였다고 표명하였으나, 『오경백편』에는 탕평정치를 위한 君師論을 제시하고 올바른 문장을 학습케 하여 문체를 바로잡고자 하는 정치적·문화적 의도가 분명히 발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要語: 五經百篇, 五經百選, 詩經, 正祖, 文體反正, 選本

<ABSTRACT>

The primary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identify the aim of compiling *Ogyeong-Baegycheon* and infer the selecting criteria of the compilation through the contents analysis of the King Jungjo's *Ogyeong-Baegycheon* which are composed of the *Shigyeong*, the third volume of the *Ogyeong-Baegycheon*.

Ogyeong-Baegycheon is a compilation of an anthology which consists of 99 essential stories from Five Classics during the King Jungjo's period. The King Jungjo's anthology is compiled by Munchepanjung and his academic perspective on styles of writing, and it reflects these clear purposes of the anthology by including the word 'Seon(選)' in the names of each chapter in the anthology and providing exemplary sentences of various category with numbers that are multiple of ten. The *Ogyeong-*

Baegpyeon is a literary work that suggests typical sentences in the study of Confucian classics.

As the third volume of the *Ogyeong-Baegpyeon*, the Shigyeong, it takes 67 percent of the *Ogyeong-Baegpyeon*. In addition, the Shigyeong has various themes over other volume. Due to these reasons, the Shigyeong is the most suitable part for studying the aim of the *Ogyeong-Baegpyeon* compilation and the selecting criteria which appear on it.

First, the Shigyeong mainly consists of 「Poong」 (13.1 percent), 「Ah」 (34.3 percent), and 「Song」 (25 percent). The main themes of 「Poong」 are praise for emperor, satire on society, and portrayal of the sage king. The main themes of 「Ah」 are poems that are party songs, songs of friendship, soldier's songs, and stories of great king. The theme of 「Song」 is historical and edifying poem describes biography of wise kings.

Next, they can be divided into six types of theme - humanity, affection, praise, biography, satire, formality. There were stories about one's past (27 peice, 40 percent), ethics, and ritual. It represents the fact that King Jungjo had educational intention to emulate the sage king for readers and political intention to identify himself as a great king.

In addition, the facts that all the compiled stories are referenced in other the Confucian classics and various literature as original texts reflect that the king Jungjo compiled them as educational purpose reading samples.

In result, there are four criteria selecting which are applied in the *Ogyeong-Baegpyeon* third volume, the Shigyeong. First, literature pieces that can edify a person such as the Three Bonds and Five Relationships in Confucianism which describes moral standard were selected. Second, the selected poems show the king Jungjo's political ideology which aims for 'scholar king' theory and the age of Yao-Shun as a typical model of governing nation. Third, sages in Confucianism and their stories were selected in the compilation. Last, the King Jungjo selected poems which have fables and phases that are referenced in other the Confucian classics and various literature.

Therefore, *Ogyeong-Baegpyeon* is a not only the special 99 compilations of the Confucian classics which is selected by the King Jungjo, but also the king-edited book which reflects the political ideology of the king Jungjo which includes Munchepanjung. In addition, its educational purpose should not be ignored. *Ogyeong-Baegpyeon* is an important literature that helps understand the political and literary ideology of the king Jungjo, academic trends during late period of Chosun Dynasty, and educational history of the period.

Key words: *Ogyeong-Baegpyeon*, *Ogyeong-Baegseon*, Shigyeong, king Jungjo, Munchepanjung, Anthology

1. 서론

選本이란 편찬자가 기존의 글에 대해 ‘精髓’라고 여기거나 ‘模範’이 될 만하다고 판단하는 글의 全篇을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선별하여 묶어놓은 서적을 말한다. 글에서 일부 구절만을 刪節하여 모아놓은 手圈이나 批點 및 圈點을 뽑은 抄本, 혹은 綱目이나 註解를 새로이 하여 편찬한 서적과는 다르게, 특별한 목적으로 주제를 선별하므로, 편찬자의 정치적 견해나 학술적 사상, 심미적 안목 등을 엿볼 수 있으며, 선본 편찬 그 자체로 선별 대상이 되는 작품에 새로운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선본은 오늘날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한국단편문학 100선’, ‘꼭 읽어야 할 고전시가 200선’ 따위의 도서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학습하기에 모범적인 글들을 선별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습의 효율과 흥미를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 교육을 목적으로 한 선본의 형식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동양에서 선본을 교육용 독본으로 계속하여 사용한 것을 교육기관의 기록과 개인 문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¹⁾

그 중 조선후기 正祖(1752~1800)가 편찬한 『五經百篇』은 易經, 書經, 詩經, 春秋, 禮記의 다섯 가지 경서 중에서 99편의 글을 선정하여 엮은 선본이다. 이 문헌은 학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경서를 대상으로, 한 나라의 수장인 정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글을 직접 선별하고 단정한 글씨로 필사하여 편찬케 하였고, 이후에는 목판에 새겨 널리 오래도록 전할 수 있게 간행을 명하였다. 즉, 『오경백편』은 기존에 존재하는 글에 대하여 모범이 될 만하다고 판단하는 글들의 전편을 선별하여 묶어놓은 서적이라는 점에서 선본의 보편성을 지닌 동시에, 경서를 대상으로 한 선본과 목판으로 간행한 선본은 희소하다는 점에서 선본의 특수성을

1) 李恒老(1792~1898)의 문집 『華西集』 卷31에 수록되어 있는 『閭塾講規 書冊目錄』을 살펴보면 『近思錄』, 『心經』, 『書社輪誦』 등의 도서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외에도 宋來熙(1791~1867)의 문집 『錦谷集』에 실린 『黔潭書院講規』, 楊應秀(1700~1767)의 문집 『白水集』에 실린 『鄉校講規』, 金時鐸(1713~1751)의 문집 『梨湖遺稿』에 실린 『梨湖書堂講規』 등에도 같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지닌 표본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제 3권 『시』는 전체 99편의 작품 중에서 67편이 수록되어 있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민속의 노래를 채집하고 왕실의 노래를 정리하여 만든 가사 모음집이라는 『시경』의 특성을 생각해볼 때 비교적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조는 각양각색의 주제와 상황을 노래한 305편의 시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67편의 시를 선별하는 과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수록 기준을 분명하게 정립하여 取舍하였을 것이다. 즉, 『오경백편』 중 제 3권 『시』는 다양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과반수에 해당하는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 3권 『시』에 수록된 내용과 수록되지 않은 내용을 분석하여 주제별로 수록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일정한 선별 기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오경백편』의 편찬 목적 또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오경백편』과 관련한 기왕의 간행물과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간행물로는 2000년 규장각에서 영인한 『五經百選』, 2009년 출간된 오경백편 번역본²⁾이 있다. 관련 연구로는 김문식의 오경백선 해제³⁾와 단행본 『정조의 경학과 주자학』에 실린 『오경의 요약본, 오경백편』 논고⁴⁾가 있다. 『오경백선』 해제는 편찬 과정과 판본, 내용, 특징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었고, 단행본에서는 정조의 경학서 편찬이라는 관점에서 『오경백편』에 대해 소개하였다. 조계영은 『오경백편』의 선사 과정을 자세히 규명하고 이를 통해 규장각의 문서 행정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연구⁵⁾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오경백편』의 편찬과 간행에 대한 조사를 개괄적으로 언급하거나 사료와 문집 등의 기록을 정리하여 다른 연구 주제의 사례로써 『오경백편』을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또한 『오경백편』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선별 의도와 기준에 대해 고찰한 연구는 전무하므로 기존 연구 성과만으로 『오경백편』의 편찬 목적을 검토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

2) 장개충, 김월성 역, 『(정조, 이산의) 오경백편』 (느낌있는책, 2009).

3) 『五經百選』 (서울대학교규장각, 2000).

4) 김문식, 『정조의 경학과 주자학』 (문헌과 해석사, 2000).

5) 조계영, “오경백편의 선사와 규장각의 문서 행정,” 『한국문화』 제60호(2012).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오경백편』의 편찬 배경과 구성을 살피고, 그 중 제 3권 「시」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둔다.

첫째, 정조가 『오경백편』을 편찬한 의도를 규명한다.

둘째, 정조가 『오경백편』 편찬 당시 가졌던 작품 수록 기준을 고찰한다.

2. 『오경백편』의 편찬

『오경백편』은 패관소품문과 고증학이 유행하던 시대에 정조에 의해 편찬되었다. 정조는 세손시절부터 문체는 세도와 관계⁶⁾된다고 하며 문체란 당시 정치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⁷⁾ 문체를 바로잡으면 정치적 상황과 사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⁸⁾고 강조하였다. 이 때 정조가 생각하는 모범적인 문장은 唐 韓愈와 柳宗元, 宋 歐陽脩와 蘇軾 등의 古文이었으며 그 학술적 바탕은 六經⁹⁾과 주자학이었다. 정조는 패관소품문과 고증학에 의해 침식된 문체를 바로잡기 위해 많은 전범 서적을 편찬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선본 편찬은 학문의 방법으로서 抄錄하는 공부를 높이 평가한¹⁰⁾ 정조의 학문적 사상이 아울러 나타난 문화

6)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 문화권에서 문체는 글의 體裁와 風格 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 글의 체재는 글의 형식, 즉 詩論辯原과 같은 文類를 의미하고, 풍격은 글쓴이의 사상과 개성에서 기인한 문장의 특성이다. 풍격은 단순히 문장의 겉모습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고, 글이 어떠한 기상을 담고 있는가의 문제까지 아우르는 복잡한 개념이다(류화선, “정조대 문체반정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1)).

7) 『朝鮮王朝實錄』 英祖實錄 52年 2月 16日 3번째 기사.
“文體關係世道, 可當一變其體。以策文言之, 虛頭張皇, 全不用力於救設, 如此之文, 當爲拔去矣。”

8) 『弘齋全書』 卷49 策問 2 文體.
“何以則丕新文體。或順或奇。各得其宜。俾有以張斯文而責世道歟。”

9) 『弘齋全書』 卷161 日得錄 1 文學.
“爲文之道。當本之六經。以立其綱。翼以諸子。以極其趣。灌之以義理。發之以英華。上可以鳴國家之盛。下可以垂後世之範。此乃作家宗旨也。”

10) 『弘齋全書』 卷163 日得錄 3 文學.
“教曰。鈔集之工。大有助於學問。張橫渠之妙契疾書。尙矣毋論。而至若我朝先正諸人。皆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장의 정증을 제시해야 했던 시대적 상황에서 고문을 지향하고 주자학을 존중하는 문체관 및 초록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학문적 사상이 융합되어 다양한 서적들이 편찬되었다. 정조조의 대표적인 선본은 『八子百選』, 『朱書百選』, 『史記英選』, 『陸奏約選』, 『오경백편』, 『杜陸千選』이 있다. 『팔자백선』은 고문의 진흥,¹¹⁾ 『주서백선』은 주자학, 『사기영선』은 역사서의 정문,¹²⁾ 『육주약선』은 주의의 표본,¹³⁾ 『오경백편』은 경학, 그리고 『두륙천선』은 시문학의 모범¹⁴⁾이라는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편찬되었는데, 고문과 주자학, 역사서, 주의, 경학, 시문학이라는

從鈔集上著力。予嘗最好鈔集工夫。而手寫成編者。殆至屢數十卷。間多有以此收效處。其視泛然看讀。不可同日而語矣。”

- 11) 『당송팔자백선』의 평론은 대부분 통치자의 입장에 따른 제도론의 시각에서 주로 국가 경영과 관련된 효용성이나 실용성에 치중하여 그 '의리'의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문체 복고를 위해 당송문을 정통 지위에 놓아 문장의 표준으로 삼고자 했던 정조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오수형, “정조의 고문 지향과 어정 『당송팔자백선』,” 『중국문학(한국 중국어문학회)』 제67집(2011)).
- 12) 『弘齋全書』卷164 日得錄 4 文學.
“史記之選。既選經書與朱書矣。羽翼經傳者。惟史是已。且今人文體太嫩弱。其顛倒如風中之絮。其浮輕如漚上之花。故爲此英選。以爲詞垣之赤幟。而漢書則典嚴莊密。故以夏侯勝。蕭望之。梅福諸傳附其下。更思如趙皇后傳序事。啓後世稗叢之體。故旋即拔之。古今人表。尤令人駭眼。將千古多少聖賢豪傑。分等取舍。豈成體段。內藏漢書。立即削其篇。”
- 13) 정조는 육선공주의의 ‘정치적 실용성’에 주목하여 이를 통치에 활용하고자 했으며, 평소 문체시하던 소설체와 소품문 유행에 대한 대안으로서 『육주약선』을 산문의 표본으로 제시하였다. 통치를 위한 서적의 편찬과 간행, 보급이 가지는 의미는 정조의 문화정책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시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체반정이란 일대사건의 일면은, 사족 계층에게 육선공주의와 같은 순정한 산문, 곧 유가적 합리성을 담고 있는 글을 쓰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따라서 『어정육주약선』은 단순한 주의선집의 개념을 넘어, 18세기 후반의 조선사회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재생산되었던 텍스트라고 볼 수 있다(심지희, “정조의 『어정육주약선』 편찬 의도와 그 배경,” 『동양한문학연구(동양한문학회)』 제38집(2014)).
- 14) 『弘齋全書』卷182 群書標記 御定書 4 『杜陸千選』 『親題卷首』.
“歷選三百篇以後。能得三百篇之大旨者。惟杜陸其庶幾乎。懋昭六宮之政。琮璜瑀瑁之訓。自家而國。聲施及遠。予固以三百篇爲歸。而取則於雅誦。潤色於杜陸。則惟在人自得之之如何。孟子不云乎。自得之則居之安。資之深。予於此亦云。遂選杜陸近體千首。名之曰杜陸千選。卽無論才與不才。讀此選者。雖不中不遠矣。兼欲觀有勸有懲而措之於黜陟之政。此可與知者道也。”

각 분야의 정문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때 정조가 위의 선본들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종의 연속 간행물로서 계획하여 차례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경백편』은 이러한 배경에서 역경, 서경, 시경, 춘추, 예기 등 오경¹⁵⁾ 중 99편의 글을 선정하여 엮은 선본으로, 경서별로 1권씩, 총 5권이 1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1795년 필사본이 완성되었고 1798년 목판본으로 간행되어 전국으로 보급되었다. 각 경서별로 한권씩 총 5권이 한 질로 이루어진 이 문헌에 대해 『군서표기』 3권의 「親撰題印行義例」에서 정조는 그 편찬 목적을 정확히 밝히고 있다.

(상략) 經學의 연구는 반드시 專門으로 하는 것을 중시한다. 그래서 王·何는 『주역』, 夏侯氏는 『서경』, 毛氏와 韓氏는 『시경』, 大戴와 小戴는 『예기』, 鄒氏·夾氏·張氏·董氏는 『춘추』 등 각기 경서 1종씩만을 전문으로 하여 어릴 때부터 머리가 하얗게 셀 때까지 익혔으니 그 어려움이 이와 같았다. 그런데 후세의 학자들은 精力도 옛사람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널리 많이 보기에만 힘쓰는데, 이는 필시 옛사람들의 장점을 모아서 아울러 연구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널리 섭렵하여 이를 축적하기만 하고 이를 연구할 겨를은 없고, 암송만 앞세우고 실친은 뒤로 미룬다. 그래서 四子와 五經은 두루 암송하면서도 행동과 마음 씩씩이를 되돌아보면 실제로는 조금도 체득한 것이 없으니, 經學이 쇠퇴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나는 ‘祖述하기만 하고 창작하지는 않는다[述而不作]’는 큰 뜻에다 아울러 ‘많은 것을 거쳐서 간략한 곳으로 돌아간다[由博反約]’는 의미를 담아서 五經 중에서 평소 실마리를 찾아가며 암송하던 부분을 뽑아서 책의 부피를 줄이고 글자의 모양을 크게 썼는데, 이는 노년에 반복해가며 외우고 이를 일상의 공부로 삼는 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후략)¹⁶⁾

15) ‘오경’이라는 용어의 성립에 대해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오경은 공자가 이전부터 전해왔던 시, 서, 예, 악, 역, 춘추 등 여섯 가지 경서에 산정을 가하여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재로 삼은 것에서 유래한다. 다만 이 중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경뿐이고 악경은 이름만 있는 것으로 시와 예 중에 음악으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경으로 굳어졌다(이경무, “유학의 경서와 학적 전통,” 『법한철학』 제30집(2003)). 이러한 오경은 공자 이전에는 사대부가 되기 위한 교양서에 지나지 않았으나 공자 문하에서는 군자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필독서로 강조되었고 이후 유가학파에 의해 성인의 도가 담긴 권위적 서적으로 인식되다가 서한시대 초엽 무제 때에는 마침내 국가적 정책으로서 오경으로 불리어졌다(김경천, “경개념의 성립과 경서화 과정,” 『중국어문논총』 제49권(2011)).

16) 『弘齋全書』 卷181 群書標記 3 『오경백편』 「親撰題印行義例」.
“治經必貴專門,故王何之易,夏侯之書,毛韓之詩,大小戴之禮記,鄒夾張董之春秋,各揣一經,童習白紛,其難也如是,而後來學者精力,既不逮於古人,其務博貪多,則必欲萃

정조는 이 글에서 경학이 쇠퇴한 오늘날, 경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고사하고 이를 채득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오경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뽑아 노년에 반복하여 읽기에 편하게 하고자 『오경백편』을 편찬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정조 본인이 곁에 두고 공부하기에 편하고자 편찬하였다고 하였지만, 당대 문인들의 경학 연구가 옛 학자들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학습을 목적으로 『오경백편』을 편찬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경백편』은 각 경서를 한권으로 하여 역, 서, 시, 춘추, 예기 순서¹⁷⁾의 총 5卷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경서별로는 『주역』 5卦와 2傳, 『서경』 虞書 5편, 夏書 1편, 商書 3편, 周書 3편으로 12편, 『시경』 國風 21편, 小雅 19편, 大雅 17편, 頌 10편으로 67편, 『춘추』 10편, 『예기』 樂記, 大學, 中庸 3편이 수록되어 총 99편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 세부적인 편명을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오경백편』 구성에 있어서 정조의 선별은 객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역경, 서경, 시경, 예기, 논어, 맹자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을 뽑아 만든 『六經常覽』, 시경과 서경 중에서 일부만을 가려 엮은 『二經英華』 등의 다른 경서 선본과 그 수록 내용을 비교한 결과 다수의 편이 겹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해준다.¹⁸⁾

古人之所長而兼治之。於是乎漁獵是資而探索無暇。記誦爲先而體認居後。四子五經。周流誦遍。而反求身心。無一半分實際見得。經學之魯莽。職此之由。予以述而不作之旨。兼寓由博反約之義。就五經中常所紬繹而諷誦者。其篇帙。大其字樣。爲便晚來輪誦。仍作常課。”

17) 이러한 순서는 각 경서의 저작 시기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보인다. 금문학자들은 육경을 공자가 자신의 철학적 정치적 견해를 드러낸 저술로 간주하여 육경을 그 내용의 심천에 따라 시, 서, 예, 악, 역, 춘추의 순서로 정하였고, 고문학자들은 육경을 공자가 정리한 고대의 사서로만 간주하여 육경을 저작 시기에 따라 역, 서, 시, 예, 악, 춘추의 순서로 정하였다(임동석, 『중국학술강론』 (고려원, 1995) - 이정무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다만, 춘추와 예기의 순서가 뒤바뀐 것은 『오경백편』의 예기에는 악기, 대학, 중용이 선별되었고, 예기에 포함되어 있던 대학과 중용을 사서 중 하나로 승격시킨 주자의 뜻을 존중하여 대학장구서와 중용장구서를 덧붙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주자의 저술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에 춘추보다 뒤에 위치한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당하다.

18) 부록에 『오경백편』과 『육경상람』, 『이경영화』 중 시경 수록 항목 비교 표를 첨부하였다. 수록 내용 비교의 대상이 된 선본들은 후속 연구에서 저자와 편찬 및 간행에 관련한 제문제를 상세하게 다루어 그 가치를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경서 선본이라는 점만을 차용하였음을 밝힌다.

여러 선본에서 공통적으로 선별된 내용이므로 해당 내용의 교훈성, 문학적 등이 비교적 짙은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오경백편』의 구성

五經	收錄 編名	收錄 編數
易	乾, 坤, 泰, 大有, 復, 繫辭傳 上·下, 序卦傳 上·下	7
書	虞書 - 堯典, 舜典, 大禹謨, 皋陶謨, 益稷 夏書 - 禹貢 商書 - 湯誥, 盤庚 上·中·下, 說命 上·中·下 周書 - 洪範, 召誥, 無逸	12
詩	國風 - 關雎, 葛覃, 鵲巢, 采芣, 谷風, 簡兮, 定之方中, 淇奧, 氓, 緇衣, 女曰鷄鳴, 鷄鳴, 陟岵, 伐檀, 蟋蟀, 小戎, 蒹葭, 匪風, 下泉, 七月, 東山 小雅 - 鹿鳴, 皇皇者華, 伐木, 天保, 出車, 南山有臺, 六月, 車攻, 吉日, 鶴鳴, 白駒, 斯干, 無羊, 大東, 楚茨, 信南山, 甫田, 大田, 賓之初筵 大雅 - 文王, 大明, 緜, 域樸, 旱麓, 思齊, 皇矣, 靈臺, 生民, 行葦, 既醉, 公劉, 抑, 崧高, 烝民, 韓奕, 江漢 頌 - 維天之命, 天作, 思文, 豐年, 敬之, 駟, 泮水, 閟宮, 那, 長發	67
春秋	魯取郟大鼎, 齊侯伐楚, 城濮之戰, 楚子問鼎, 邲之戰, 鞞之役, 鄆陵之戰, 穆叔如晉, 諸侯伐齊, 季札觀周樂	10
禮記	樂記, 大學, 中庸	3
計		99

3. 『오경백편』 수록 『시경』 분석

3.1 『시경』의 개관

『시경』은 중국의 가장 오래된 시가집으로, 『시경』의 시편들은 西周 초기인 기원전 1100년경부터 춘추 중기인 기원전 600년경 사이에 지어졌다고 추정된다. 본래는 3,000여 편이었다고 전해지나 공자에 의해 311편으로 산정되었고 그 중 305편이 전한다. 공자 이후 많은 유학자들에 의해 『시경』에 대한 해석과 정리가

거듭 이루어졌는데, 춘추시대魯나라 사람인 모형 학과가 주석한 『毛詩』만이 전해졌다. 이어 후한 때 鄭玄이 『모시』에 주석을 한 『毛詩箋』이 성행하였고, 唐나라 태종 때 孔穎達이 정현의 주에 다시 疏를 기술한 『詩經正義』는 황제의 명령으로 국가에서 완성한 주석서인 까닭에 이후 수백 년 동안 절대 권위를 떨쳤다. 그러나 남송 때 朱熹가 『詩集傳』과 『詩序辨說』을 저술하여 『모시서』의 오류를 비판하고 『시경』 경문에 의거하여 작자의 본 뜻을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관점은 현대의 시경 연구에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시경』은 중국 문학의 기원이라는 가치뿐만 아니라, 고대의 사회, 정치, 민속, 종교, 언어 등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지니고 있는 고전이라는 점에서 매우 존중되어 왔다. 특히 유가에 있어서 『시경』은 단순히 오래된 시가집이라는 틀에서 더 나아가 경전 중 하나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는데, 이는 유가에서 『시경』에 대해 작품의 문학적·심미적 측면과 함께 정치적·사회적·외교적 측면을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유가에서 강조한 『시경』의 정치적 측면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애초에 『시경』의 성립과정에 매우 정치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천자는 각 지방의 풍속을 살피고 정치의 잘잘못을 알아 施政에 참고하기 위해 각지의 민요를 채집하는 관리를 두었고, 이렇게 채집된 시를 樂官의 太師로 하여금 정리하게 한 것이 『시경』의 원전이 되었다는 점에서 시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왕의 훌륭한 정사와 행적을 칭송한 작품, 잘못된 정사로 인해 혼란에 빠진 나라를 비판하거나 한탄하는 작품, 충신이 임금에게 간언하기 위해 지은 작품 등은 유가의 학자들이 특히 부각시켜 높이 평가하였다.

『시경』의 사회적 측면은 곧 교화의 기능을 말하는데, 유가의 관점에서 시는 성정에 근본을 두고 인간 내면의 순수한 정서를 드러낸 언어이므로 이로써 인간의 덕성을 陶冶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한 개인이 덕성을 함양하고 순수한 심성을 길러 이를 문학 작품 속에 담으면 작품을 읽는 사람들의 덕성 함양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치를 말미암아 그 대상을 한 개인의 단계에서 부부로, 부자로, 인류의 단계로 확대하면 결국 시는 사회의 교화를 이루며 풍속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경』의 사회적 측면은 유가에서 주장하는 治道인 ‘修身齊家治國平天下’와 맥락을 같이한다는 사실과,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교화됨을 알 수 있으니 그 사람됨이 은유돈후한 것은 시로써 교화된 것이다.”¹⁹⁾라는 공자의 언급을 통해서 유가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측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가에서 『시경』의 외교적 측면을 중시하였다는 점은 “시 삼백 편을 외우고도 정사를 담당함에 통달하지 못하고 사방에 사신으로 감에 전대할 수 없다면 비록 많이 외웠다 하여도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²⁰⁾라는 공자의 언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시경』은 외교적 언어로, 자국의 뜻을 은근하게 전달하고 타국에 대한 예의와 존대를 나타내는 훌륭한 도구였던 것이다. 이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논지를 전개할 때, 전고와 같은 기존의 문학적 상징을 적극 활용하는 전통적 글쓰기 문화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상과 같은 유가의 『시경』에 관점은 다음과 같은 공자의 언급을 통해 종합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

“너희들은 왜 시를 배우지 않느냐? 시는 일으킬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무리 지을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으며 가까이는 부모를 섬기며 멀리는 임금을 섬길 수 있고 새와 짐승과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 수 있다.”²¹⁾

공자는, 시라는 것은 성정에 근본을 두고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로써 사람을 감동시키기 쉬워 그 선한 본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다양한 내용의 시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풍속이나 정치의 득실을 바라볼 수 있으며, 개인과 개인 사이에 공감을 느끼게 하여 서로 더불어 무리지어 화합할 수 있으며, 정도에 알맞게 간언하고 비판하는 방법을 제공하여 원망하는 마음도 올바르게 발현시킬 수 있으며, 그

19) 『禮記』經解篇.

“孔子曰 入其國 其教可知也 其爲人也 溫柔敦厚 詩教也.”

20) 『論語』子路篇 5장.

“子曰 誦詩三百 授之以政 不達 使于四方 不能專對 雖多 亦奚以爲.”

21) 『論語』陽化篇 9장

“子曰 小子 何莫學乎詩 詩 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 邇之事父 遠之事君 多識于鳥獸草木之名.”

교화가 가까이는 집안에 미쳐서 자신의 부모를 잘 모시게 하고 멀리는 나라에 미쳐서 임금을 섬기게 하고, 시구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물들의 백과사전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자에 의해 산정된 305편의 『시경』 작품은 ‘시’라는 문학 범위 내의 의미를 뛰어넘어 다양한 방면에서 그 가치를 재조명 받았고, 여러 유가 학자들에 의해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유가에서 ‘이상적인 인간’으로 여기는 ‘군자’라면 반드시 익혀야 하는 경전으로 자리 잡았다. 때문에 여러 현인들에 의해 연구되고 분석되면서 다른 경전이나 역대 저명한 문인들의 작품 등에서 빈번하게 인용되었고 이후 외교 문서나 기문, 시, 서간문 등 모든 종류의 작문 활동에 활용되는 데에까지 확대되었다.²²⁾ 즉, 지식인이라면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문학 전범임은 물론이고, 다양한 문학 전범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경서로 굳어진 것이다. 이는 유교를 국교로 삼은 조선의 문인에게도 또한 해당되는 사항이었는데, 문인들이 『시경』을 바탕으로 글을 지은 결과물은 방대한 양의 문집과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모든 종류의 기록물뿐만 아니라 궁의 이름, 지명²³⁾ 등에서도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2) 이와 관련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미정,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시경(詩經) 인용 양상과 그 문학치료적 의의,”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3).

김수경, 김언중, “조선시대 한일(韓日), 한중(韓中)외교 필담·창화에 나타난 《시경(詩經)》 인식과 원용(援用),” 『중국어문논총(중국어문연구회)』 제53집(2012).

박순철, “《四書集註》의 《詩經》 引用詩註解와 《詩集傳》 註解比較研究,” 『중국인문과학(중국인문학회)』 제50집(2012).

박인화, “四書에 引用된 詩經詩 研究,”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한문교육학과, 1989).
이재문, “先秦諸家の 《詩經》 引用에 關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2000).

정원호, “《朝鮮王朝實錄》의 《詩經》活用例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2013).

23) 景福宮은 정도전이 『詩經』 大雅 <既醉>편의 ‘既醉以酒, 既飽以德, 君子萬年, 介爾景福’이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景福’을 따서 궁궐명으로 삼은 데서 유래되었고, 대구광역시 관저동은 시경 국풍 주남 <관저>편에서 그 지명이 유래되었다.

3.2 『오경백편』 수록 『시경』의 내용 분석

『시경』은 크게 각국의 여러 지역에서 수집된 민요인 『風』, 宴席의 노래인 『雅』, 제사를 지낼 때의 노래인 『頌』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오경백편』에서는 『풍』 21편, 『아』 36편, 『송』 10편을 선별하였다. 그 세부 항목과 수록 비율을 표로 정리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오경백편』 수록 『시경』 편수

『시경』 목차 구분		총 편수	『五經百篇』 수록 편수	수록 비율
風	周南	11	2	18.1%
	召南	14	2	14.3%
	邶風	19	2	10.5%
	鄘風	10	1	10%
	衛風	10	2	20%
	王風	10	0	0%
	鄭風	21	2	9.5%
	齊風	11	1	9%
	魏風	7	2	28.5%
	唐風	12	1	8.3%
	秦風	10	2	20%
	陳風	10	0	0%
	檜風	4	1	25%
	曹風	4	1	25%
豳風	7	2	28.5%	
小計		160	21	13.1%
雅	小雅	74	19	25.7%
	大雅	31	17	54.8%
小計		105	36	34.3%
頌	周頌	31	5	16.1%
	魯頌	4	3	75%
	商頌	5	2	40%
小計		40	10	25%
計		305	67	22%

<표 2>를 살펴보면 「풍」보다는 「아」와 「송」 수록 비율이 높는데, 이는 “國風에는 雅頌과 비슷한 곳이 있지만 아송에는 국풍과 암암리에 합치되는 곳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사람의 기교가 끝내 天機에 미치지 못하는 대목이다.”²⁴⁾라고 한 정조의 언급을 통해 민간의 노래보다 궁정의 노래가 더 고아하다고 생각하여 아송을 더 중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2.1 風

『오경백편』 「시」에 수록된 풍 작품의 배경과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풍」은 각 나라의 國人²⁵⁾들이 부른 노래를 모은 것으로, 15국풍 중 ‘周南’, ‘召南’은 나라 이름이 아니며, 邶·鄘風이 위나라의 노래이므로 실제로는 11개국의 노래로 구분할 수 있다. 국풍이 불려진 周 초에는 혈연관계를 기초로 한 봉건제도로 통치하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지배계층의 횡포와 異族들의 침입, 제후국들의 세력 확장으로 점차 주 왕실의 권위가 쇠약해졌고 춘추시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혼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당시 주 왕실이 권위를 잃었으나 각 제후국들은 종법제도²⁶⁾를 따랐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尊王攘夷의 기치를 내걸고 大宗인 주 왕실을 따랐다. 이런 혼란한 시대 속에서 백성들은 여러 방면의 회로애락 정서를 담은 가요를 불렀고, 그것을 채집한 것이 국풍이다.²⁷⁾ 때문에 古註에서는 주나라 왕족과 귀족이 옮겨나 그들의 생활에 대해 노래한 주남·소남을 正風, 제후국

24) 『弘齋全書』 卷162 日得錄 2 文學 김조순의 기록.

“國風有似雅頌處，雅頌無暗合國風處。此是人巧終不及天機者也。”

25) ‘國’이라는 의미는 실제로 周 초에 와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국에 거하는 사람은 천자 및 귀족, 노비, 하급농민, 상공업자까지를 포함하며, 이들을 ‘국인’이라 일컬었다(박종훈, “《詩經·國風》의 社會詩 研究,”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9)).

26) 서주의 종법제도는 장자계승제와 토지분봉제가 결합된 산물로, 주 천자는 대대로 장자가 천자가 되고, 둘째아들 이하는 제후에 봉해졌으며, 제후는 대대로 장자가 제후가 되고 둘째아들 이하는 대부로, 대부는 대대로 장자가 대부가 되고 둘째아들 이하는 사에 봉해졌다. 사의 토지는 매우 협소하여 다시 분봉할 수 없었고, 나누어진 토지 또한 장자에 의해 계승되었으므로 나머지 아들들은 장자에 종속되었다(박종훈(2009)).

27) 박종훈(2009).

의 백성들이 읊은 패풍 이하를 變風이라 칭하면서, 정풍이란 德化가 미치고 올바른 질서가 유지되는 시대의 노래를 뜻하며, 패풍 이하의 변풍은 주 왕실이 쇠퇴한 시대의 노래로 노여움과 비애가 넘친다고 설명하였다.

‘주남’과 ‘소남’은 각각 주공이 주나라에서 모은 시, 소공이 남방에서 모은 시를 말한다. 총 11편 중 2작품이 선별된 ‘주남’ 중에서 <關雎>편은 주나라 문왕이 후비를 맞아 부덕을 찬미하여 지은 것이면서 『시경』의 첫 편으로서, 공자는 이에 대해 “즐거우면서 음탕하지 않고, 슬프면서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²⁸⁾고 하며 중화의 미가 있다고 평하여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그 의미가 부각²⁹⁾되기도 하였다. <葛覃>편은 후비가 문왕의 비로서 검소한 아내의 덕과 시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것을 찬미한 시이다. 총 14편 중 2작품이 선별된 ‘소남’ 중에서 <鵲巢>편과 <采蘋>편도 모두 부덕을 찬미한 내용이다. ‘주남’, ‘소남’의 시들은 예절의식이 드러나는 악가로, 시가 대체로 온화하고 화목하다. 정조는 이러한 ‘주남’과 ‘소남’, 즉 정풍의 시 중에서도 이상과 같이 천자와 후비의 덕을 찬미하는 내용과 『논어』에서 언급되는 등 중요한 의미를 지닌 시들을 수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邶·鄘·衛 3국은 은나라 말엽에 주의 영지였는데, 무왕이 은나라를 친 뒤에 셋으로 나뉘어 조가를 중심으로 북쪽을 패, 남쪽을 용, 동쪽을 위라 하였다. 후대에 패, 용이 위에 병합되었기 때문에 ‘邶風’과 ‘鄘風’은 곧 ‘衛風’이라 할 수 있다. 총 19편 중 2작품이 선별된 ‘패풍’에서 <谷風>편은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빠져 버림받은 여인이 한탄하는 내용으로, 집전에서는 위나라의 풍속이 음란한 것을 풍자한 시라고 서술하고 있다. <簡兮>편은 어진 이가 등용되지 않은 자신을

28) 『論語』 八佾篇 20장.

“子曰 關雎 樂而不淫 哀而不傷.”

29) 관저편에 대한 논의는 美詩說, 刺詩說, 美刺折衷說로 나눌 수 있는데, 조선에서 미시설은 주로 주자의 설을 기초로 하여 양촌 권근, 서계 박세당, 성호 이익 등에 의해 관저장의 작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자시설에 대해서는 다산 정약용 등의 학자에 의해서 연구 되었다. 백호 윤희는 이 3가지 설과는 다른 독특한 주장을 하여 조선 학자들의 시경론의 다양성을 넓혔다고 평가받는다(이병찬, “『시경』 『관저』 장에 대한 한 중의 견해 비교 고찰,” 『한문학논집(근역한문학회)』 제17집(1999)).

자조하며 성왕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집전에서는 인재를 등용하지 않는 시대를 풍자한 것이라 기술하였다. 총 10편의 ‘용풍’ 중 유일하게 선별된 <定之方中>편은 위나라 문공이 오랑캐에게 멸망당하여 초구로 옮겨 거주하고 궁실을 지었는데, 그 시기와 제도가 도리에 알맞아 백성들이 그를 찬미하는 내용으로, 위나라의 번성과 부유함을 노래하고 있다. 총 10편 중 2작품이 선별된 ‘위풍’ 중에서 <淇奥>편은 위나라 무공을 찬미한 내용이다. <氓>편은 예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정인과 쉽게 혼인한 여인이 혼인한 뒤 변해버린 남편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내용으로, 집전에서는 위나라 선공 때에 예의가 사라져 풍속이 음란해진 것을 풍자하는 시라고 서술하였다. 패, 용, 위풍의 시는 대부분 애정혼인생활과 관련하여 풍자하는 내용으로 감정이 많이 표출되어있고 배우자에 대한 강한 투쟁성이 드러나는데, 정조는 이러한 시에 대해 <곡풍>편과 <맹>편만을 수록하였고, 그 외에 희소한 주제인 인재 등용에 관련하여 풍자하는 내용과, 어진 임금을 찬미하는 내용의 시를 선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곡풍>편과 <맹>편은 국풍의 시가 대부분 짧은데 비해 보기 드물게 길고 잘 나누어진 것이 특징인데, 이는 ‘위풍’의 음악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다.³⁰⁾ 따라서 애정혼인생활에 대한 풍자시 중에서도 <곡풍>편과 <맹>편을 선별한 것은 ‘위풍’의 다른 시에 비해 그 형식과 수준이 불만하였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총 10편 중 한 작품도 수록되지 않은 ‘王風’은 동주왕조의 수도 낙읍 일대에서 불린 노래로, 당시 주나라는 천자국의 권위를 상실하고 제후국과 다름없던 시기이므로, 왕풍의 시들은 도읍을 옮긴 뒤 폐허가 된 종묘와 궁실을 보고 슬퍼한 시, 사회에 대한 무관심과 절망을 나타낸 시, 행역나간 남편을 그리워하는 시 등 대체로 혼란하고 절망적인 내용이다. 때문에 주나라가 권위를 상실하여 올바른 도가 행해지지 않은 혼란한 시대상이 반영된 ‘왕풍’의 시들은 주나라를 존숭한 정조의 사상에 의해 한 작품도 수록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0) 장계성, 『시경입문』 (귀주인민출판사). ; 지의선, “詩經의 <國風> 研究,”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2004)에서 재인용.

‘鄭風’은 애정시의 비율이 아주 높아 21편 중 17편이 애정혼인에 관한 시이며, 특히 지은이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과 표현이 대담하고 음란하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주희는 정풍에 대해 ‘女惑男之語’라 하여 여자가 남자를 미혹케 하는 말이라고 평하기도 하였다.³¹⁾ 정조는 이와 같은 총 21편의 정풍 중에서 <緇衣>편과 <女曰雞鳴>편을 수록하였는데, 이 두 작품은 각각 어진 임금을 찬미하는 시와 남녀의 유별을 지키는 부부의 노래이다. 즉, 음시가 대부분인 ‘정풍’ 중에서도 덕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의 시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총 11편으로 구성된 ‘齊風’은 풍격이 온화하고 완만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양공과 그의 친여동생 문강이 간통한 일을 폭로한 시, 애공의 난정을 풍자한 시 등이 대부분이어서, ‘정풍’ 선별과 마찬가지로 비도덕적인 내용은 제외하고 임금을 권면하는 내용의 <雞鳴>편만을 수록하고 있다.

총 7편 중 2편이 선별된 ‘魏風’ 중 <陟岵>편은 나라가 각박하고 외침이 많아 부모와 자식이 이별하는 일이 많은 것을 풍자한 시이고, <伐檀>편은 지위를 얻어 녹만 받고 직분은 수행하지 않는 벼슬아치 때문에 인재가 등용되지 못함을 풍자하는 내용이다. 위나라는 산이 많고 토지가 척박하여 늘 물이 모자랐고 천재 지변도 많았으며 게다가 왕도 우매하여 백성들은 부역에 따른 중압감이 매우 컸다. 때문에 ‘위풍’의 시들은 강한 풍자성을 띠고 있어 『시경』 중 민간풍자시의 대표로 불린다. 그 중에서도 부역으로 인한 부모 자식 간의 이별과 그리움을 노래한 <척호>편과 관리들의 패만과 탐욕을 풍자한 <별단>편은 가장 대표적인 풍자 시이자 문학성 또한 높아 선별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12편으로 이루어진 ‘唐風’의 시들은 대부분 소박하고 엄정하며 심한 것은 암울한 기운을 보이는데, 그 중 유일하게 선별된 <蟋蟀>편은 관리가 공무에 열중하다 한 해가 다 가서야 조금 쉬면서도 너무 지나치게 방탕하지는 않은가 경계하는 내용으로, 집전에서는 당나라의 풍속은 요임금의 유풍을 이어서 매우 근면하고 근심이 깊어 스스로를 경계함이 이와 같았음을 보여주는 노래라고 서술하고 있다. 정조는 이러한 당풍 시의 분위기를 가장 잘 표현한 대표작이라고 불린 <실

31) 지의선, “詩經의 <國風> 研究,”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2004).

술>편³²⁾을 선별한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모두 10편인 ‘秦風’은 車馬田狩를 읊은 시가 많은데, 정조는 그 중에서도 의로써 군대를 일으키는 내용의 <小戎>편과 풍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蒹葭>편을 선별하고 있다.

‘陳風’은 10편 모두 수록되지 않았는데, 이는 진나라가 巫鬼의 풍속이 만연하여 부녀자들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귀신을 섬겼으며 음란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진풍의 시들은 전체 10편의 시 중 6편이 애정시이다. 집전에서도 진나라의 풍속에 대해 ‘진나라에 봉해진 胡公의 부인 大姬는 신분이 존귀함에도 불구하고 巫覡歌舞의 일을 좋아하였으니, 그 백성들이 이에 물들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조가 음란한 풍속이 있었고, 그 풍속이 반영된 진나라의 시는 선별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檜風’의 <匪風>편은 쇠락해가는 나라를 돌아보며 주나라의 어진 도를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회풍’의 4편의 시들은 모두 쇠락하여 망해가는 나라의 모습을 읊은 시이다. 정조는 그 중에서도 주나라를 존송하는 내용을 담은 <비풍>편을 선별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曹風’은 모두 4편인데 그 중 <下泉>편 역시 ‘회풍’의 <비풍>편과 같은 내용으로 주 왕실의 옛 도를 그리워하는 시이다. ‘조풍’의 시는 혼란스러운 정사를 근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하천>편 역시 주나라를 존송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별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邠風’은 모두 7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선별된 2작품 중 하나인 <七月>편은 총 8장, 매장 11구로 구성된 국풍 중 가장 긴 시이며, 매 달의 풍경과 심경, 농경사회에서 해야 할 일을 읊은 시이다. 집전에서는 주공이 성왕에게 농사일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지은 시라고 기술하고 있다. <東山>편은 주공이 동산을 정벌한 일을 읊은 내용으로, 집전에서는 주공이 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병사들을 위로하며 지은 시라고 하였다. <동산>편은 그 구성이 치밀하고 문학적 표현이 훌륭하다. 빈나라는 농업이 발달하여 부유하였으며 풍속이 근면하고 소박하여 낙천적이

32) 반고는 당풍의 가장 유명한 시로 <산유구>, <갈생>을 꼽았다(지의선(2004)).

면서도 음란함이 없었다. 그러나 주공이 성왕을 보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오해와 의심이 많아 시에서 대체로 근심과 걱정이 나타나고 있다.³³⁾ 정조는 ‘빈풍’의 시 중에서 통치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백성들의 농사일에 대해 노래한 <칠월>편과 병사들의 노고를 표현하고 주공과 성왕의 행적³⁴⁾을 보여주는 <동산>편을 수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2 雅

다음으로 『오경백편』 『시』에 수록된 『雅』 작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雅’는 ‘正’으로 풀이되는 한자어로, 바르다는 의미이다. 주로 왕정의 흥망성쇠에 대해 노래하였으며 주나라 때 사대부들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궁정에서 쓰이던 음악이며, 조정에서 연회를 열 때 부르던 노래인 ‘小雅’와 조정에서 의식을 행할 때 부르던 노래인 ‘大雅’로 분류된다. ‘소아’는 대부분 주나라 왕실이 쇠퇴하고 平王이 東遷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지어진 시로, 혼란한 세태를 반영한 시가 많고, ‘대아’는 후직과 무왕, 선왕을 찬양한 노래나 주 왕실의 통치를 미화하는 내용이 많다. 이는 주로 천자, 군자, 가빈과 같은 지배계급에 의해 불렸기 때문에 시의 분위기 또한 화려하고 청아하다.

‘소아’는 모두 74편으로, 정조는 그 중 19편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鹿鳴>편은 빈객을 맞이하는 연회의 흥겨움을 노래한 시로, 집전에서는 여러 신하들과 연회를 즐기는 임금을 위해 지은 시라고 기술하고 있다. <녹명>편은 연회자리에서 불리는 『시경』 노래로 가장 대표적인 시이기도 하다. <天皇者華>편은 임금이 사신을 보낼 때 예악으로써 배웅하는 모습을 노래한 시로, 다른 나라에서 사신이

33) 지의선(2004).

34) 주공의 형인 管叔, 蔡叔이 武庚에게 붙여 주공을 모함하면서 “장차 유자에게 불리할 것이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성왕이 주공을 의심하게 되었다. 이에 주공은 동산으로 물러가서 3년 동안 머물렀는데, 뒤에 성왕이 주공의 『鷓鴣』 시를 보고, 또 雷風의 변고를 당하고 나서는 크게 후회하여 주공에 대한 의심을 풀고 주공을 맞이하자, 주공은 동산에서 무경과 관숙, 채숙 등을 치고 3년 만에 돌아와 동산 시를 지어 군사들을 위로하였다(한국고전종합 DB).

은 것을 환영하는 외교적 의미를 띤 연회에서 주로 불린 노래이기도 하다. <녹명>편과 <황황자화>편은 『의례·연례』에 ‘연향이 시작될 때 췌을 연주하고 악공이 녹명·<四牡>·황황자화 세 노래를 가창하며 시작한다.’³⁵⁾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공식적인 연회 음악이었다. <伐木>편은 벗과 이웃 사이의 우정을 노래한 시이고, <天保>편은 신하가 현명한 군주를 찬미하는 내용, <出車>편은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들을 위로하는 내용, <南山有臺>편은 임금의 어진 이를 얻음을 즐거워한 시로, 연회자리에서 주로 불렸던 노래이다. <六月>편은 선왕의 대신인尹吉甫가 문무를 겸비하여 북방의 獫狁을 정벌한 일을 읊은 시이고, <車攻>편은 선왕이 주나라의 옛 제도를 회복한 일을 읊은 시이다. <吉日>편은 선왕이 사냥하는 모습을 찬미한 노래, <鶴鳴>편은 초야의 인재를 등용하여 임금의 덕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재료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을 비유적으로 노래한 것이다. <白駒>편은 손님이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는 내용이고, <斯干>편은 선왕이 덕정을 펼쳐서 새 궁을 낙성한 것을 축하하는 시이다. <無羊>편은 선왕이 가축을 잘 기르는 모습을 찬미한 시이다. <大東>편은 국가의 혼란한 세태를 풍자한 시로, 집전에서는 동쪽 나라가 부역에 시달리고 재물에 폐해를 입으니, 譚나라 대부가 이 시를 지어 그 폐해를 말한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楚茨>편은 공경대부가 농사에 힘써서 종묘 제사를 만드는 과정을 기술하였는데, 모씨서에서는 유왕 때 정사가 혼란하고 부역이 무거워 농사가 황폐해지고 백성들이 유랑하여, 제사를 올려도 신이 歆饗하지 않음을 풍자한 시라고 하고 있다. <信南山>편은 유왕이 성왕의 사업을 닦지 못하여 우임금의 토지를 받들지 못함을 풍자한 시로 알려져 있다. <甫田>편은 공경대부가 농사에 힘써서 제사를 받드는 내용인데, <초자>편과는 달리 농사를 짓는 부분을 세밀하게 묘사한 시이다. <보전>편이 공경대부의 입장에서 농사를 돌보아 제사를 받드는 내용이었다면 <大田>편은 농부가 농사일을 하여 제사를 받드는 내용이다. <賓之初筵>편은 위나라 무공이 술자리에서 실수한 것을 뉘우치며 지은 시이다. 대부분 공식

35) 『儀禮·宴禮』.

“設宴于堂廉… 工入，升自西階，北面坐，相者東面坐，遂授瑟，乃降。工歌鹿鳴四牡皇皇者華。卒歌，主人獻工。”

적인 행사에서 불렀던 노래나 군주의 정사에 관련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대아’는 모두 31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17편이 선별되었다. 수록된 <文王>편은 문왕의 덕을 칭송하며 그의 보우 아래 주나라가 번성한다는 내용이다. <大明>편은 문왕의 탄생과 그의 공적, 혼인, 그의 후손인 무왕에 이르기까지 문왕의 밝은 덕을 찬미하는 노래이다. <騶>편은 태왕이 처음 기주로 옮겨가서 도읍을 세우고 오랑캐를 물리친 내용으로, <문왕>편, <대명>편, <면>편은 모두 집전에 주공이 문왕의 덕을 찬미하며 성왕에게 경계할 것을 권면한 시라고 기술되어 있다. <棫櫟>편은 문왕의 덕이 백성들의 귀의처가 된다는 내용과 그 이유를 읊은 시인데, 『모씨서』에서는 문왕이 인재를 관직에 등용함을 노래한 시라고도 하였다. <旱麓>편과 <思齊>편 또한 문왕의 덕을 노래한 시이다. <皇矣>편은 태왕, 태백, 왕계, 문왕의 공적을 차례로 노래하여 주나라를 찬미하는 시이며, <靈臺>편은 백성들이 문왕을 위해서 즐거이 누대를 짓고, 문왕 역시 누대에서의 경관을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모습을 그린 내용이다. <生民>편은 후직, 문왕, 무왕 등의 주나라 선조들의 탄생 비화를 읊은 시이다. 집전에서는 郊祀를 지낸 뒤에 불렀던 노래인 것으로 짐작하였다. <行葦>편은 제사가 끝나고 잔치하며 음식을 노인들과 나눠먹으며 그들을 봉양하는 모습을 읊은 노래이다. 『모씨서』에서는 주나라의 왕실이 후덕하여 백성들의 풍토 역시 노인을 봉양하고 구족과 화목하게 지냄을 찬미한 시라고 하였다. <既醉>편은 앞의 <행위>편에 대한 노인들의 답가로, 음식과 봉양을 받고서 복된 말을 전해주는 내용이다. <公劉>편은 공류가 백성들에게 후하게 대했던 일을 찬미한 내용이다. <抑>편은 통치자로서 지녀야 할 덕목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한 노래인데, 집전에서는 이 시가 위나라 무공이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해 지은 시라고 하고 있다. <崧高>편은 신백과 선왕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다. <烝民>편은 윤길보가 선왕이 어진 사람에게 정사를 맡기고 능력 있는 사람을 도리에 맞게 쓰는 모습을 찬미한 시로, 선왕이 樊侯인 仲山甫를 명하여 제나라에 성을 쌓게 하자 윤길보가 그를 전송하면서 지은 것이다. <韓奕>편은 한나라가 봉해질 때에 선왕이 제후들에게 명하여

韓侯를 위하여 성을 쌓아주도록 한 일을 윤길보가 찬미한 시이다. <江漢>편은 선왕이 召穆公에게 명하여 淮水 남쪽의 오랑캐를 정벌하게 한 일을 찬미한 시이다. 공통적으로 특정 인물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을 서술하며 찬미한 내용을 선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3 頌

「頌」은 용과 통용되는 글자로 ‘형용하다’는 뜻이다. 「詩序」에 따르면 “성대한 덕의 형용을 찬미함으로써 그 성공을 신명께 고하는” 시라고 하였는데, 즉 「송」은 조상의 공덕을 노래와 춤으로 장중하고 경건하게 묘사한 것이다. 신에게 제사 드리고 조상의 덕을 기릴 때 사용된 일종의 제례악이라고 할 수 있다. 「송」은 ‘周頌’, ‘魯頌’, ‘商頌’으로 구분되는데, 주송은 주 왕조가 제사 때 연주했던 시가로, 모두 31편이다. ‘주송’은 『시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작품이며 주공이 직접 제정했다고 알려져 있다. 주송이 종묘의 악가인데 비하여 노송은 모두 노나라의 군왕에 대한 찬양의 노래로, 모두 4편이다. ‘상송’은 5편인데, 명칭처럼 상나라의 선조들에 대한 칭송이 아니라 사실은 송의 제례가이다. 상의 후예를 宋에 봉하였는데, 송나라 사람이 정리해 낸 상조의 頌歌이기 때문이다. 『오경백편』 「시」에 수록된 「송」 작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송’은 총 31편 중 5편이 수록되었는데, <維天之命>편은 문왕에게 제사지내는 내용, <天作>편은 태왕에게 제사지내는 내용, <思文>편은 후직에게 제사지내는 내용, <豊年>편은 가을·겨울에 추수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제사를 지내며 부르는 시이고, <敬之>편은 성왕이 신하들에게 경계를 받고 그에 답하는 내용이다.

‘노송’은 4편 중 과반수인 3편이 수록되었는데, 수록된 <駟>편과 <泂水>편 그리고 <閟宮>편은 모두 희공이 선정을 베풀며 정사를 잘 돌본 것을 칭송한 노래이다. 미수록된 <有駟>편은 풍년이 들어 잔치하며 송축하는 내용으로 특정 인물을 찬양한다거나 관련된 사건 등이 없어 선별되지 않은 듯하다.

5편 중 2편이 수록된 ‘상송’ 중 <那>편은 탕임금을 제사지내는 시이다. <나>편은 正考甫가 상송 12편을 주나라 太師에게서 얻어 편집할 때에 첫 번째로 삼은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는 작품이므로 수록된 듯하다. <長發>편은 大禘를 지낼 때 부른 노래로, 상나라의 선조들을 모두 언급하며 배향하는 내용이다.

3.2.4 주제 구분

본 절에서는 『오경백편』 『시』에 수록된 67편의 작품들의 주제를 분류하여 그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오경백편』의 편찬 목적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시경』에 수록된 시들의 주제를 그 내용이 서술하고자하는 바의 목적에 따라 대략 6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군신·부자·형제·붕우·남녀 간의 지켜야 할 도리 혹은 지녀야 할 덕성에 대해 노래한 작품인 ‘人倫’, 남녀 간의 그리움과 한탄 등의 감정에 대해 노래한 작품인 ‘愛情’, 옛 성현 혹은 임금 등 특정 위정자에 대한 그리움, 칭송을 노래한 ‘讚美’, 특정 인물이나 구체적 사건에 대해 서술하여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을 권면하는 내용의 ‘行蹟’, 나라의 쇠미함을 한탄하거나 잘못된 정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諷刺’, 국가의 성대한 잔치나 연회, 제사 의식에서 관습적으로 불린 작품인 ‘儀禮’ 등이다.³⁶⁾ 이에 따라 『오경백편』 『시』에 수록된 67수의 작품을 구분해보면 <표 3>과 같다.

36) 이상과 같은 주제 구분과 용어 등은 시경의 통행본인 『毛詩序』와 주자의 『詩集全』에 기록된 시에 대한 해석을 주로 하고, 추가적으로 관련 논문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관련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수경, 김언중, “조선시대 한일(韓日), 한중(韓中)외교 필담, 창화에 나타난 《시경(詩經)》 인식과 원용(援用),” 『中國語文論叢(중국어문연구회)』 제53집(2012).

이채문, “先秦諸家の《詩經》引用에 關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0).

〈표 3〉 『오경백편』 수록 『시경』 주제 구분

주제 구분	篇名	數	率
人倫	〈葛覃〉, 〈采芣〉, 〈女曰鷄鳴〉, 〈鷄鳴〉, 〈伐木〉, 〈鶴鳴〉, 〈白駒〉, 〈行葦〉, 〈既醉〉, 〈抑〉	10	15%
愛情	〈關雎〉, 〈谷風〉, 〈氓〉, 〈蒹葭〉	4	6%
讚美	〈鵲巢〉, 〈緇衣〉, 〈天保〉, 〈南山有臺〉	4	6%
行蹟	〈定之方中〉, 〈淇奥〉, 〈東山〉, 〈六月〉, 〈車攻〉, 〈吉日〉, 〈斯干〉, 〈無羊〉, 〈賓之初筵〉, 〈文王〉, 〈大明〉, 〈緜〉, 〈域樸〉, 〈旱麓〉, 〈思齊〉, 〈皇矣〉, 〈靈臺〉, 〈生民〉, 〈公劉〉, 〈崧高〉, 〈烝民〉, 〈韓奕〉, 〈江漢〉, 〈敬之〉, 〈駟〉, 〈泮水〉, 〈閟宮〉	27	40%
諷刺	〈簡兮〉, 〈陟岵〉, 〈伐檀〉, 〈匪風〉, 〈下泉〉, 〈大東〉	6	9%
儀禮	〈鹿鳴〉, 〈皇皇者華〉, 〈維天之命〉, 〈天作〉, 〈思文〉, 〈豐年〉, 〈那〉, 〈長發〉	8	12%
其他	〈蟋蟀〉, 〈小戎〉, 〈七月〉, 〈出車〉, 〈楚茨〉, 〈信南山〉, 〈甫田〉, 〈大田〉	8	12%
計		67	100%

〈표 3〉을 살펴보면 특정 인물의 행적 혹은 해당 인물의 성품을 서술한 ‘행적’ 주제의 작품이 27수로 가장 많이 수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인륜’, ‘의례’와 백성들의 농사일 등에 대한 주제가 포함된 ‘기타’ 항목 순으로 주제별 수록 작품의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조가 『오경백편』을 편찬한 교육적 의도와 정치적 의도를 모두 잘 나타내고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적인 의도는 성왕, 현인의 모범적인 모습을 제시하여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귀감으로 삼을 수 있게 하려는 ‘행적’ 주제 다음으로 사람 사이의 마땅한 도리에 대해 노래하여 교화를 꾀하는 ‘인륜’ 주제의 작품이 많이 수록되었다는 것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시로써 교화를 펼치는 일은 『시경』의 사회적 측면인 교화의 기능을 전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정조 역시 공자의 시론에 적극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시경의 교화에 대한 정조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왕이 大德을 밝히고 왕비가 六宮을 거느리는 정사와 집안에서 남녀가 절도를

지키는 교훈을 집안에서부터 국가로까지 확대하고 더 멀리까지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진실로 『시경』의 교육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³⁷⁾

임금은 임금의 도리를, 신하는 신하의 도리를, 가장은 가장의 도리를, 부녀자는 부녀자의 도리를 행하여 집안에서부터 국가, 그보다 더 멀리까지 사람의 인륜이 지켜지게 하려면 『시경』을 교육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다. 정조는 『오경백편』을 편찬하면서 교육 도구로 알맞은 『시경』 중에서도 성현의 업적에 대해 서술한 ‘행적’ 주제가 다양한 지위의 사람이 지녀야 할 덕목에 대해 노래한 ‘인륜’ 주제가 두드러지는 작품을 다수 선별함으로써 『시경』의 교화 기능을 활용하여 『오경백편』의 교육적 기능을 더 강화하였다.

정치적 의도는 ‘행적’ 주제의 작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파악할 수 있다. 노래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은 대부분 夏·殷·周 삼대시절의 성왕으로, 정조는 자신의 정치이념을 “聖王의 교화”라 언급하거나 자신의 수원성 행차를 “聖皇이 와서 놀았다”라고 하며 자신의 언행을 성왕에 빈번히 비유하곤 하였다.³⁸⁾ 이때 ‘성왕’, ‘성황’이라는 용어는 성인과 군주가 분리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요, 순, 우, 탕, 문, 무, 주공을 가리키며, 이들은 군주이자 스승인 군사를 지향했던 정조의 정치적 이념과 일맥상통한다. 즉, 군사론³⁹⁾을 펼치던 정조는 삼대시절의 성왕을 자신의 정치적 이상형으로 삼았으며, 『오경백편』 『시』에 태평했던 시대에 존재했던 성왕들의 행적에 대해 칭송한 작품을 다수 수록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이념을 은연중에

37) 『杜陸千選』 親題卷首.

“懋昭六宮之政。琮璜琺瑯之訓。自家而國。聲施及遠。予固以三百篇爲歸。”

38) 박현모, “正祖의 聖王論과 지방통치 방식,” 『정신문화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제23집(2000).

39) 임진왜란 이후 조선왕실에 학과를 중심으로 정사가 전개되는 朋黨政治가 성행하여 산림에 의해 왕이 선택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임금이 스승의 역할까지 아울러 수행하는 君師論이다. 군사론은 帝王學으로서의 聖學을 추구하여 임금이면서 스승인 君師를 이상적인 君主像으로 여기는 탕평정치의 일면이다. 숙종 후반기부터 이러한 탕평정치가 모색되면서 산림의 존재가 퇴색되었고, 뒤이어 영조 재위기에 탕평정치의 제도적인 면모가 완비되어 왕권이 더욱 강화되었다. 뒤이어 정조는 군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며 탕평정치를 완성했다고 평가되는데, 학문적인 면모에서 특히 두각을 드러내어 문신들을 직접 가르치고 문집을 내는 등 임금과 스승으로서 양자 모두 왕권 강화를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드러낸 것이다.

3.3 『오경백편』 수록 『시경』의 인용 분석

『오경백편』에 수록된 『시경』 작품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다른 경서에서 직접 인용되었거나 널리 쓰이는 고사의 원전이 되는 작품이라는 점이다. 이는 곧 정조가 『오경백편』을 교육용 독본으로 여기고 편찬하였다는 점을 방증해준다. 『시경』은 예로부터 정치적 상황에서는 군신간의 대화에서 신하가 자신의 뜻을 나타내거나 임금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넘치시 전달하는 도구로 쓰였고, 외교적 상황에서는 사신이 오고갈 때, 그들을 접대하고 응대하면서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는 도구로 쓰였으며, 시와 記, 祭文, 上樑文, 序, 跋 등의 각종 문장을 지을 때에도 적은 글자로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자주 인용되었다. 때문에 공자는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다.”⁴⁰⁾고 말하기도 하였다. 『시경』 중에서 자주 인용되는 표현을 익숙하게 익혀두면 다른 경서를 학습할 때에도 도움이 되며 문장을 지을 때에도 큰 보탬이 되므로, 작품의 내용과는 별개로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 포함된 작품은 교육용 독본인 『오경백편』에 필수적으로 수록하여야 했을 것이다. 오히려 이 점이 내용보다 선별 여부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⁴¹⁾ 따라서 본 절에서는 『오경백편』 수록 『시경』 작품의 인용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오경백편』의 편찬 목적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40) 『論語』 季氏篇 5장.

“不學詩，無以言.”

41) 예를 들어 ‘상송’ 5편 중 수록되지 않은 작품은 3편인데, <烈祖>편은 탕임금을 제사지내는 시이고 <玄鳥>편은 상나라가 세워진 연원에 대한 내용이며, <殷武>편은 고종을 제사지내는 시이다. 작품의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수록된 <나>편, <장발>편이 각각 탕임금을 제사지내는 시와 상나라 조상들의 공적을 읊은 시이므로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나>편과 <장발>편 구절의 인용 빈도가 월등히 높은 것을 통해 문학적 전범이 되는 지에 대한 사항이 선별 기준에 고려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3.1 風

‘주남’의 <관저>편에 등장하는 ‘河洲’, ‘採芼’ 등의 단어는 후비의 덕, 아녀자로 서의 올바른 도리를 칭송할 때 인용된다. <갈담>편의 ‘于飛’는 남녀의 동행, 조화를 뜻한다. ‘소남’의 <작소>편에서 유래한 ‘작소’, ‘鵲巢鳩居’, ‘鳩居鵲巢’ 등의 용어는 맥락에 따라 부인의 덕, 강제로 타인의 거처를 빼앗음, 조치가 부당함 등의 뜻으로 흔히 인용된다. <채번>편에 등장하는 ‘祈僮’은 공경을 다하여 일을 받드는 부녀자의 모습, ‘蘋蘩’은 제사의 예를 받드는 부녀자의 직분, ‘採蘋’은 아녀자의 덕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다.

‘패풍’의 <곡풍>편에서는 ‘宴爾’, ‘濁溼清渭’, ‘甘心如薺’, ‘下體’, ‘葑菲’ 등 여러 용어가 파생되었는데, 각각 신혼을 뜻하는 말, 시비선악의 분별,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여 몸은 수고롭지만 행복함, 여인의 미모가 쇠락함, 비루한 사람이 한 가지 덕을 가짐 등의 뜻으로 쓰인다. <간혜>편의 ‘棲苔’, ‘簡兮’는 태평성대에 현자가 제자리에 있음, 현자가 뜻을 얻지 못함 등을 뜻하는 말로 인용되기도 한다. ‘용풍’의 <정지방중>편에 등장하는 ‘玉繩’, ‘營室’ 등의 구절들은 궁을 새로 지은 내용과 연관되어 집을 짓고 나서 쓰는 글은 上樑文에 자주 인용되기도 한다. ‘위풍’의 <기오>편은 『논어』 학이편에서 공자와 자공의 문답 중에 ‘如切如磋 如琢如磨’ 구절이 인용⁴²⁾되어 학문이나 덕행을 배우고 닦는다는 뜻의 고사인 切磋琢磨 4자의 원전이다. 또한 『춘추좌씨전』 소공 2년에도 인용되기도 하였다. ‘제풍’의 <계명>편은 편명 자체가 부녀자의 덕, 어진 부인 등을 뜻하는 단어로 흔히 쓰이며 ‘蟲薨同夢’은 여색에 빠지지 말라는 경계의 말로 쓰인다. ‘위풍’의 <척호>편은 그 편명 자체로 부모 자식 간의 이별, 그리움 등을 뜻하는 말로 쓰이며, <별단>편은 그 중 한 구절이 『맹자』 진심 상편⁴³⁾에 인용되어 나라의

42) 『論語』學而篇 15장.

“子貢曰 貧而無詔 富而無驕 何如 子曰 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 子貢曰 詩云 如切如磋 如琢如磨 其斯之爲與 子曰 賜也始可與言詩已矣.”

43) 『孟子』盡心上篇 32장.

“公孫丑曰 詩曰 不素餐兮 君子之不耕而食 何也 孟子曰 君子居是國也 其君用之 則安富

녹만 받고 하는 일은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뜻으로 많이 쓰였다. <겸가>편은 『시경』 중에서 독특한 격식으로 손꼽히는 작품으로, 그 시구는 그리움을 뜻하는 말로 많이 쓰인다. ‘회풍’의 <비풍>편은 ‘조풍’의 <하천>편과 함께 망해가는 나라의 혼란스러움을 통탄할 때 자주 인용되는 시이다. ‘빈풍’의 <칠월>편은 『맹자』 등문공 상편⁴⁴⁾에서 인용되었고, 각 구절이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뜻으로 흔히 인용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달의 풍경과 해야 할 일을 그린 《빈풍칠월도》도 있다. ‘빈풍’의 <동산>편 역시 정벌 혹은 행역을 위해 멀리 가는 땅을 뜻하는 말로 쓰이는 ‘東山’, 매우 고통스럽고 수고스러움을 뜻하는 ‘敦瓜’,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교훈을 뜻하는 ‘施衿結禡’, 병사가 멀리 정벌하러 가서 고생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雨濛’, 비가 오자 정벌나간 남편을 걱정하는 부인의 마음을 뜻하는 ‘鶴鳴’ 등 인용되는 구절이 매우 많다.

「풍」 작품들은 민가의 노래라는 특성 때문에 그 인용 구절이 대부분 남녀 간의 정, 아녀자의 도리, 농사일을 비롯하여 다양한 생활상을 뜻하고 있다. 이는 경서에서 「풍」 작품을 인용한 양상을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해당 작품의 대의를 지칭하기보다는 일부 구절의 표현을 빌리거나 편명만을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풍」의 작품들은 대부분 문장의 생동성이나 특정 상황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함축성 등 문장의 형용을 목적으로 서간문, 기문, 서문, 상량문, 시 등 대부분의 문장에서 폭 넓게 인용되고 있다.

3.3.2 雅

‘소야’의 <녹명>편은 연회자리에서 불리는 노래이기 때문에 빈객을 환영하는 뜻인 ‘承筐’, 천자의 연회에 참석한 신하와 빈객들을 뜻하는 ‘食苹’, 녹록을 바라지 않는 고결한 사람을 뜻하는 ‘食苹鹿’ 등의 용어가 파생되었다. <황황자화>편의 ‘皇華’, ‘駢征’은 각각 명을 받고 사신가는 사람과 분주함을 뜻하는 말로 인용되었

尊營 其子弟從之 則孝弟忠信 不素繁兮 孰大於是.”

44) 『孟子』滕文公上篇 3장.

“孟子曰 民事不可緩也 詩云 晝爾于茅 宵爾索綯 亟其乘屋 其始播百穀.”

다. <벌목>편은 『맹자』 등문공 상편⁴⁵⁾에서 인용되었고 각 구절들이 벗 사이의 우정과 두터운 관계 등을 뜻하는 말로 널리 쓰이기도 한다. <천보>편의 각 구절은 임금을 칭송하거나 나라의 상서로움을 뜻하는 단어로 많이 인용된다. <유월>편은 일부 구절과 편명이 ‘군대’, ‘정벌’의 뜻으로 종종 쓰이기도 한다. <학명>편은 ‘他山之石’이라는 고사의 원전이기도 하고, 다른 구절들은 은거하는 현자를 뜻하는 말로 많이 쓰이기도 한다. <백구>편은 일부 구절을 산절하여 어진 이, 귀한 손님을 뜻하는 말로 쓰기도 한다. <사간>편은 ‘大人占之 維熊維羆 男子之祥 維虺維蛇 女子之祥’, ‘乃生男子 載弄之璋 乃生女子 載弄之瓦’ 등의 구절에서 아들을 낳을 꿈, 아들을 얻은 기쁨을 뜻하는 ‘熊夢’, ‘弄璋’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다. <대동>편은 ‘維南有箕 不可以簸揚 維北有斗 不可以挹酒漿’이라는 구절에서 실제 내용은 없이 이름만 지닌 것이라는 뜻의 단어인 ‘箕斗’가 유래되기도 하였다. <초자>편은 제사를 올려 신을 섬기고,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 절차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어, 제사와 관련된 맥락으로 종종 인용되기도 한다. <신남산>편은 ‘上天同雲 雨雪雰雰’이라는 구절에서 눈이 내리기 전 온 하늘에 가득히 낀 먹구름, 눈이 내리는 전거 등의 뜻을 지닌 ‘同雲’이 유래한 시이기도 하다. <대전>편은 『맹자』 등문공 상편⁴⁶⁾에 인용되었으며, <빈지초연>편은 연회의 화려한 안주와 술자리의 즐거운 분위기 등을 뜻하는 ‘初筵’, ‘康爵’ 등의 단어가 유래되었다.

‘대아’의 <문왕>편은 『대학』,⁴⁷⁾ 『중용』,⁴⁸⁾ 『맹자』 등문공 상편,⁴⁹⁾ 『맹자』 이루

45) 『孟子』滕文公上篇 4장.

“吾聞出於幽谷 遷于喬木者 未聞下喬木而入於幽谷者.”

46) 『孟子』滕文公上篇 3장.

“詩云 雨我公田 遂及我私 惟助 爲有公田 由此觀之 雖周 亦助也.”

47) 『大學』 2장.

“詩曰 周雖舊邦 其命維新.”

『大學』 3장.

“詩云 穆穆文王 於緝熙敬止 爲人君 止於人 爲人臣 止於敬 爲人子 止於孝 爲人父 止於慈 與國人交 止於信.”

『大學』 10장.

“詩云 殷之未喪師 克配上帝 儀監于殷 峻命不易 道得衆則得國 失衆則失國.”

상편⁵⁰) 『맹자』 공손추 상편⁵¹) 등에 다수 인용되었으며, 백세토록 자손이 번창한다는 뜻의 ‘本支百世’, 소리와 기미를 뜻하는 ‘聲臭’, 선인의 덕업을 계승한다는 뜻의 ‘聿脩’, 충성스러운 신하를 뜻하는 ‘蠹臣’, 옛 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정치를 행한다는 ‘維新’, 지극히 많은 수를 뜻하는 ‘麗億’ 등의 단어를 비롯하여 각 구절들이 다양한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대명>편은 ‘作合’, ‘俛天’, ‘天作之合’, ‘文定’, ‘聿懷’ 등의 단어가 남녀가 부부로 맺어짐, 황후와 공주, 혼인을 칭송하는 말, 약혼, 두터운 뜻 등을 표현하는 말로 많이 쓰이기도 한다. <면>편은 『맹자』 고자 하편⁵²)과 『맹자』 양혜왕 하편⁵³)에서 인용되었다. <한록>편은 중용⁵⁴)에서 인용된 ‘鳶飛魚躍’ 구절이 널리 쓰이기도 한다. <사제>편은 『맹자』 양혜왕 상편⁵⁵)에서 인용되었고, 어진 어머니를 뜻하는 단어인 ‘太姒’ 등이 많이 인용되기도 한다. <황의>편은 『중용』⁵⁶)과 『맹자』 양혜왕 하편⁵⁷)에서 인용했으며, ‘執馘’ 등의 단

48) 『中庸』 33장.

“詩云 予懷明德 不大聲以色 子曰 聲色之於以化民未也 詩云 德猶如毛 毛猶有倫 上天之載 無聲無臭 至矣.”

49) 『孟子』滕文公上篇 3장.

“詩曰 周雖舊邦 其命維新 文王之謂也 子力行之亦以新子之國.”

50) 『孟子』離婁上篇 7장.

“詩云 商之孫子 其麗不億 上帝既命 侯于周服 侯服于周 天命靡常 殷士膚敏 裸將於京 孔子曰 仁不可爲衆也 夫國君好仁 天下無敵.”

51) 『孟子』公孫丑上篇 4장.

“詩云 永言配命 自求多福 太甲曰 天作孽 猶可違 自作孽 不可活 此之謂也.”

52) 『孟子』告子下篇 19장.

“詩云 憂心悄悄 慍于群小 孔子也 肆不殄厥慍 亦不隕厥問 文王也.”

53) 『孟子』梁惠王下篇 3장.

“王曰 寡人有疾 寡人好色 對曰 昔者 大王好色愛厥妃 詩云 古公亶父 來朝走馬 率西水滸 至于岐下 爰及姜女 聿來胥宇 當是時也 內無怨女 外無曠夫 王如好色 與百姓同之 於王何有.”

54) 『中庸』 12장.

“詩云 鳶飛戾天 魚躍于淵 言其上下察也.”

55) 『孟子』梁惠王上篇 7장.

“老吾老 以及人之老 幼吾幼 以及人之幼 天下可運於掌 詩云 刑于寡妻 至于兄弟 以御于家邦 言舉斯心 加諸彼而已 故推恩 足以保四海 不推恩 無以保妻子 古之人 所以大過人者 無他焉 善推其所爲而已矣 今恩足以及禽獸 而功不至於百姓者 獨何與.”

56) 『中庸』 33장.

어가 유래되기도 하였다. <영대>편은 『맹자』 양혜왕 상편⁵⁸)에 인용되었으며, 임금의 은택이 미치는 곳, 관리가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 함을 뜻하는 ‘靈沼’, ‘詠沼’ 등의 단어가 유래된 시이기도 하다. 탄생, 탄생일 등의 뜻으로 쓰이는 단어 ‘誕彌’는 <생민>편의 ‘誕彌厥月 先生如達’ 구절에서 유래하였다. <기취>편은 『맹자』 고자 상편⁵⁹)에 인용되기도 하였다. <역>편은 시가 길고, 담고 있는 뜻이 장중하여 일부 구절이 많이 인용되었고, 『중용』⁶⁰)에 인용되기도 하였다. <숭고>편의 ‘維嶽降神 生甫及申’ 구절은 훌륭한 인물의 탄생과 죽음은 산천과 하늘이 주관한다는 뜻으로 자주 인용된다. <증민>편은 『중용』⁶¹)과 『맹자』 고자 상편⁶²)에 인용되었는데, 특히 『맹자』의 경우 공자가 『시경』의 <증민>편에 이르러 ‘이 시를 지은 자는 그 도를 알 것이다.’라고 하여 학자들에게 중요시되었다.

-
- “詩云 予懷明德 不大聲以色 子曰 聲色之於以化民末也 詩云 德猶如毛 毛猶有倫 上天之載 無聲無臭 至矣.”
- 57) 『孟子』 梁惠王下篇 3장.
“詩云 王赫斯怒 爰整其旅 以遏徂莒 以篤周祜 以對於天下 此文王之勇也 文王一怒而安天下之民.”
- 58) 『孟子』 梁惠王上篇 2장.
“詩云 經始靈臺 經之營之 庶民攻之 不日成之 經始勿亟 庶民子來 王在靈囿 麀鹿攸伏 麀鹿濯濯 白鳥鶴鶴 王在靈沼 於物魚躍 文王 以民力爲臺爲沼 而民歡樂之 謂其臺曰靈臺 謂其沼曰靈沼 樂其有麀鹿魚鼈 古之人 與民偕樂 故能樂也.”
- 59) 『孟子』 告子上篇 17장.
“詩云 既醉以酒 既飽以德 言飽乎仁義也 所以不願人之膏粱之也 令聞廣譽施於身 所以不願人之文繡也.”
- 60) 『中庸』 16장.
“詩曰 神之格思 不可度思 矧可射思.”
『中庸』 33장.
“詩云 相在爾室 尚不愧于屋漏 故君子 不動而敬 不言而信.”
- 61) 『中庸』 27장.
“是故 居上不驕 爲下不倍 國有道 其言 足以興 國無道 其默 足以容 詩曰 既明且哲 以保其身 其此之謂與.”
『中庸』 33장.
“詩云 予懷明德 不大聲以色 子曰 聲色之於以化民末也 詩云 德猶如毛 毛猶有倫 上天之載 無聲無臭 至矣.”
- 62) 『孟子』 告子上篇 2장.
“詩曰 天生烝民 有物有則 民之秉夷 好是懿德 孔子曰 爲此詩者 其知道乎 故有物 必有則 民之秉夷也 故好是懿德.”

「아」 작품들은 궁정에서 쓰이던 음악으로 훌륭한 임금을 찬양한 노래나 주 왕실의 통치를 미화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인용되는 구절들이 대부분 특정 대상을 칭송하는 문장에 주로 쓰이며 본래 시에서 쓰인 장중하고 심오한 뜻을 그대로 담고 있다. 또한 경서의 인용 맥락을 살펴보면 유가 철학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하며, 사서에서의 인용 횟수 역시 압도적으로 높다.⁶³⁾ 즉, 「아」 작품들의 인용 양상은, 「아」 작품이 궁정에서 쓰이던 노래이고 현인을 칭송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문장의 품격을 높이고 일반 문장과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와 유가의 학자가 자신의 철학을 설명할 때에 근거로 삼고자 사용한 경우로 나뉜다.

3.3.3 頌

‘주송’의 <유천지명>편은 『중용』⁶⁴⁾에 인용되었으며, <경지>편은 흔히 쓰이는 ‘日就月將’ 고사의 원전이기도 하다. ‘노송’의 <경>편은 논어에서 공자가 “시경 300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思無邪’일 것이다.”⁶⁵⁾라고 평한 말에서 ‘思無邪’의 원전이 되는 시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경>편과 관련하여 정조는 필사본 『오경백선』⁶⁶⁾의 편집을 끝내고 목판에 새기기 전에 규장각의 학자들에게

63) 四書에서 인용한 시경 73편 중에서 대아에서 32편이 인용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아에서 15편, 국풍에서는 모두 13편이 인용되었고, 송에서는 모두 10편이 인용되었다. 특히 대아 중에서도 문왕이 덕을 잘 닦아 천명을 이어받은 동시에 이를 잘 보존하였음을 찬미한 문왕편이 8편이나 인용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박인화, “四書에 引用된 詩經詩 研究,”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한문교육학과, 1989)).

64) 『中庸』 26장.

“詩云 維天之命 於穆不已 蓋曰天之所以爲天也 於乎不顯 文王之德之純 蓋曰文王之所以爲文也 純亦不已.”

65) 『論語』 爲政篇 2장.

“子曰 詩三百 一言以蔽之 曰思無邪.”

66) 『오경백선』의 원래 이름은 『오경백선』이었다. 1795년 필사본이 완성될 때까지 『오경백선』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다가 1795년 목판본으로 간행되면서 제목을 『오경백편』으로 바꾸고, 제 3권 「시」에서 ‘노송’의 <경>편을 추가하였으며 제 4권 「춘추」에서 ‘召陵之盟’을 ‘齊侯伐楚’로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제 5권 「예기」에서 주자의 ‘大學序’, ‘中庸序’ 2편을

“시경 삼백 편을 한마디로 포괄한다면 ‘思無邪’인데 노송편의 <경>장이 선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만일 이 장을 첨가하면 100이란 숫자를 넘게 되니, 하나를 빼고 이를 첨가한다면 뺄 수 있는 장은 어느 것이 될까?”⁶⁷⁾라고 묻기도 하였다. <반수>편은 우리나라의 成均館을 가리키는 단어 ‘泮宮’이 이 시의 ‘思樂泮水 薄采其芹’ 구절에서 유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악인의 악습을 뜻하는 ‘鶉音’, 귀중한 물건을 뜻하는 ‘南金’, 수재를 뜻하는 ‘泮芹’, ‘芹藻’, 긍정적 영향이나 감화로 인해 옛 습성을 고친다는 의미의 ‘泮林革音’ 등 주로 학교, 교육기관과 관련된 뜻으로 종종 인용된다. <비궁>편은 『맹자』 등문공 상편, 등문공 하편⁶⁸⁾에 인용되기도 하였다. ‘상송’ 중 <장발>편의 ‘濬哲維商 長發其祥’ 구절은 蘇軾의 <龍興節集英殿宴教坊詞>에서 ‘屬誕彌之令旦 履長發之嘉祥’이라는 구절에 인용되면서 이후 제왕의 생일에 쓰는 상투적인 표현으로 쓰였다.

『송』의 작품들은 조상의 공덕을 경건하게 묘사한 제사 노래이자 가장 오래된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와 표현이 절제되어 있고 다소 궁벽하다. 이 때문에 인용되는 구절 역시 그 표현은 어렵고 희소하지만, 본래 시에서 뜻하는 바에서 와전되어 다른 뜻으로 흔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한편, 경서에서 인용한 맥락을 살펴보면, 대부분 특정 인물의 행적에 대해 서술할 때 근거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송』 작품들의 인용 양상은, 『송』 작품이 제례악으로 쓰이던 노래이고 오래된 古語 표현이 대부분이므로, 원전 작품에서 쓰인 맥락과는 다르게 의미가 와전되어 인용된 경우와, 유가의 성현으로 받아들여지는 여러 인물들의 구체적인 행적을 서술할 때 인용된 경우로 나뉜다.

이상과 같이 『오경백편』 『시』에 수록된 작품들은 모두 경서에서 인용되었거

각각 ‘대학’과 ‘중용’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판각 및 인출하였다.

67) 『五經百選』 <示五經百選印所諸學士>.

“詩三百蔽一言曰思無邪，魯頌之闕章 不入於選中。若添此章，則當過百數，欲刪一而添此，則可刪者，當以何章爲歸耶?”

68) 『孟子』 滕文公上篇 4장.

“魯頌曰 戎狄是膺 荊舒是懲 周公 方且膺之 子是之學 亦爲不善變矣.”

『孟子』 滕文公下篇 9장.

“詩云 戎狄是膺 荊舒是懲 則莫我敢承 無父無君 是周公所膺也.”

나, 줄여서 상용어구로 쓰이는 구절을 갖추고 있다. 인용 양상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널리 쓰이는 구절이 포함된 작품이라는 점은 공통적이다. 이는 곧 정조가 『오경백편』 「시」 선별에 있어서, 그 학습 효용을 위하여 각 작품의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경서에서 인용되어 널리 쓰이거나 글을 읽고 짓는 데에 유용한 표현이 유래한 작품인지 아닌지 그 여부 또한 수록 기준의 하나로 고려하였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正祖朝 親撰 『오경백편』 제 3권 「시」 수록 작품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을 통해 주제와 인용 양상을 고찰하여 작품 선별 기준을 추측해보고, 나아가 『오경백편』의 편찬 목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오경백편』의 편찬 배경과 편찬 구성을 살펴보았다. 『오경백편』은 문장의 正宗을 제시해야 했던 시대적 상황과 고문을 지향하고 주자학을 존승했던 정조의 문체관 및 초록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학문적 사상이 융합되어 행해진 ‘선본 편찬’이라는 배경에 의해 편찬되었다. 『오경백편』은 역경, 서경, 시경, 춘추, 예기 오경 중에서 99편의 글을 선정하여, 각 경서별로 한권씩 총 5권이 한 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제 3권 「시」는 67편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양이 많다. 유가에 있어서 ‘시’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정치적·사회적·외교적 측면에서 그 가치를 재조명 받아 반드시 익혀야 하는 경전인 『시경』을 대상으로 선별하였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경』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였다는 점에서 『오경백편』의 편찬 목적과 선별 기준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오경백편』 「시」 수록 작품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풍」 160편 중 21편, 「아」 105편 중 36편, 「송」 40편 중 10편을 수록하여, 각각 13.1%, 34.3%, 25%의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민간의 노래보다 궁정의 노래가 더 고아하

다고 생각하여 아송을 더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수록된 『풍』 21편의 내용은 주로 천자와 후비의 덕을 찬미하는 내용, 어진 임금을 찬미하는 내용, 잘못된 정사를 풍자하는 내용과 의로써 군대를 일으키는 내용, 백성들의 농사일에 대해 노래한 내용, 병사들의 노고를 표현하고 주공과 성왕의 행적에 대해 서술한 내용 등이다. 애정혼인생활과 관련하여 감정이 지나치게 표출되어있어 투쟁성이 드러나거나 사회에 대한 무관심과 절망을 나타낸 시, 주나라가 권위를 상실하여 올바른 도가 행해지지 않은 혼란한 시대상이 반영된 시 등 음란하거나 혼란하고 절망적인 내용은 수록하지 않았다. 『아』 36편은 연회자리에서 불리는 대표적인 시, 벗과 이웃 사이의 우정을 노래한 시,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들을 위로하는 시, 공경대부가 농사에 힘써서 종묘 제사를 받드는 과정을 서술한 시를 비롯하여 훌륭한 정사를 펼친 성왕들의 행적에 대해 노래한 시를 수록하였다. 『송』 10편은 성왕의 출생과 업적 및 말씀을 상세하게 서술하거나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살펴야 할 덕목을 서술하여 역사적,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를 수록하였다.

이를 ‘人倫’, ‘愛情’, ‘讚美’, ‘行蹟’, ‘諷刺’, ‘儀禮’ 등 6가지 주제로 분류한 결과 ‘행적’ 주제의 작품이 27수로 40%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수록되었고, 그 다음으로 ‘인륜’, ‘의례’ 항목 순으로 그 수가 많았다. 여기에서 정조가 『오경백편』을 통해 성왕, 현인의 모범적인 모습을 제시하여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귀감으로 삼을 수 있게 하려는 교육적 의도와, 夏·殷·周 삼대시절의 성왕과 자신을 동일시하고자 한 정치적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수록된 작품들은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는데, 다른 경서에서 직접 인용되었거나 널리 쓰이는 고사의 원전이 되는 작품이라는 점이다. 그 인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문장의 형용을 목적으로 다양한 범위의 문체에서 폭 넓게 인용된 경우, 문장의 품격을 높이고 일반 문장과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인용된 경우, 유가의 학자가 자신의 주장을 개진할 때에 근거로 삼기 위해 인용된 경우, 유가의 성현으로 받아들여지는 여러 인물들의 구체적인 행적을 서술하고자 인용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정조가 『오경백편』 『시』에 적용한 작품 선별 기준을 추측

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모범적인 인륜상인 삼강오륜을 묘사하여 읽는 이를 교화시킬 수 있는 작품.
- 둘째, 성왕의 행적을 서술하여 정조의 정치적 이상향을 제시하는 작품.
- 셋째, 유가에서 성현으로 제시하는 인물의 행적을 서술한 작품.
- 넷째, 경서에서 인용된 표현이나 문장의 형용을 위해 상투적으로 쓰이는 고사를 갖추고 있는 작품.

즉, 정조는 오경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뽑아 노년에 반복하여 읽기에 편하게 하고자 『오경백편』을 편찬하였다고 표명하였으나, 『오경백편』에는 탕평정치를 위한 군사론을 제시하고 올바른 문장을 학습케 하여 문체를 바로잡고자 하는 정치적·문화적 의도가 분명히 발현되어 있다.

기존의 『오경백편』 연구에서는 편찬 과정 분석과 형태적 특징, 판본 정리 등을 통해 『오경백편』과 관련된 제문제를 다루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오경백편』이 선본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선별을 거쳐 수록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그 편찬 목적을 고찰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 3권 『시』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오경백편』의 편찬 목적에 대한 결론을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더불어 『오경백편』과 같은 의도로 편찬된 『팔자백선』, 『주서백선』, 『사기영선』, 『육주약선』, 『두륙천선』 역시 이러한 연구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정조조의 선본에 대해 더욱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며 논의를 마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大學中庸：附諺解』(영인). 학민문화사, 2008.

『五經百選』(영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0.

- 『五經百篇』.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奎 30.
『六經常覽』.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奎 1057.
『二經英華』.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奎 1296.

2. 2차 자료

1) 단행본

- 김문식. 『정조의 경학과 주자학』. 서울: 문헌과 해석사, 2000.
김문식. 『정조의 제왕학』. 과주: 태학사, 2007.
성백효. 『(懸吐完譯)論語集註』.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6.
성백효. 『(懸吐完譯)大學·中庸集註』.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12.
성백효. 『(懸吐完譯)孟子集註』.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5.
신승운. 『(譯註)禮記集說大全』.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4.
장개충, 김월성 역. 『(정조, 이산의) 오경백편』. 고양: 느낌있는책, 2009.

2) 연구논문

- 강미정.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시경(詩經) 인용 양상과 그 문학치료적 의의.”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3.
김경천. ““경(經)” 개념의 성립과 經書化 과정.” 『중국어문논총』 제49집(2011).
중국어문연구회.
김소희. “史記英選의 編纂과 刊行에 관한 연구.” 『서지학보』 제40집(2012). 한국서지학회.
김수경, 김연중. “조선시대 한일(韓日), 한중(韓中)외교 필담, 창화에 나타난 《시경(詩經)》 인식과 원용(援用).” 『중국어문논총』 제53집(2012). 중국어문연구회.
류화선. “正祖代 文體反正 研究.”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1.
박순철. “《四書集註》의 《詩經》 引用詩註解와 《詩集傳》 註解比較研究.” 『중국인문과학』 제50집(2012). 중국인문학회.
박인화. “四書에 引用된 詩經詩 研究.”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한문교육학과. 1989.
박중훈. “《詩經·國風》의 社會詩 研究.”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9.

- 박현모. “正祖의 聖王論과 지방통치 방식.” 『정신문화연구』 제23집(2000). 한국학중앙연구원.
- 심지희. “正祖의 『御定陸奏約選』 편찬 의도와 그 배경.” 『동양한문학연구』 제38집(2014). 동양한문학회.
- 오수형. “正祖의 古文 指向과 『御定唐宋八子百選』.” 『중국문학』 제67집(2011). 한국중국어문학회.
- 이경무. “儒學의 經書와 學的 傳統.” 『범한철학』 제30집(2003).
- 이병찬. “『詩經』 『關雎』 장에 대한 韓·中의 견해 비교 고찰.” 『한문학논집』 제17집(1999). 근역한문학회.
- 이채문. “先秦諸家の ≪詩經≫ 引用에 關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2000.
- 정원호. “≪朝鮮王朝實錄≫의 ≪詩經≫活用例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2013.
- 조계영. “五經百篇의 繕寫와 奎章閣의 문서 행정.” 『한국문화』 제60호(2012).
- 지의선. “詩經의 <國風>研究.”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2004.
- 최미라. “시경의 수양철학적 의미.”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유학대. 2010.

3. 웹 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e-kyujanggak.snu.ac.kr).
- 한국고전번역DB: 한국문집총간 (<http://db.itkc.or.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부록] 『시경』 목차 비교

詩經 總目次	五經百篇	二經英華	六經常覽	
周南	關雎	○	○	
	葛覃	○	○	
	卷耳		○	
	樛木		○	
	螽斯			
	桃夭			
	兔置			
	采芣			
	漢廣			
	汝墳			
	麟之趾			
召南	鵲巢	○		
	采芣	○	○	
	草蟲			
	采蘋			
	甘棠			
	行露			
	羔羊			
	殷其雷			
	標有梅			
	小星			
	江有汜			
	野有死麇			
	何彼禮矣			
騶虞				
北風	柏舟			
	綠衣			
	燕燕			
	日月			
	終風			
	擊鼓			
	凱風			
	雄雉			
匏有苦葉				

『五經百篇』 수록 『詩經』에 대한 연구

詩經 總目次		五經百篇	二經英華	六經常覽
北風	谷風	○		
	式微			
	旄丘			
	簡兮	○		
	泉水			
	北門			
	北風			
	靜女			
	新台			
	二子乘舟			
邶風	柏舟			
	牆有茨			
	君子偕老			
	桑中			
	鶉之奔奔			
	定之方中	○		
	蟋蟀			
	相鼠			
	幹旄			
	載馳			
衛風	淇奧	○	○	
	考盤		○	
	碩人			
	氓	○	○	
	竹竿			
	芄蘭			
	河廣			
	伯兮			
	有狐			
	木瓜			
王風	黍離			
	君子於役			
	君子陽陽			
	揚之水			
	中穀有藿 兔爰			

詩經 總目次		五經百篇	二經英華	六經常覽
王風	葛藟			
	采芣			
	大車			
	丘中有麻			
鄭風	緇衣	○	○	
	將仲子			
	叔於田			
	大叔於田			
	清人			
	羔裘			
	遵大路			
	女曰雞鳴	○	○	
	有女同車			
	山有扶蘇			
	蓍兮			
	狡童			
	褰裳			
	豐			
	東門之墀			
	風雨			
	子衿			
	揚之水			
	出其東門			
	野有蔓草			
齊風	溱洧			
	雞鳴	○	○	
	還			
	著			
	東方之日			
	東方未明			
	南山			
	甫田			
	盧令			
	敝笱			
載驅				
猗嗟				

詩經 總目次		五經百篇	二經英華	六經常覽
魏風	葛屨			
	汾沮洳			
	園有桃			
	陟岵	○		
	十畝之間			
	伐檀	○		
	碩鼠			
唐風	蟋蟀	○		
	山有樞			
	揚之水			
	椒聊			
	綢繆			
	杖杜			
	羔裘			
	鶉羽			
	無衣			
	有杕之杜			
	葛生			
	采芣			
	車鄰			
秦風	駟驥			
	小戎	○	○	
	蒹葭	○	○	
	終南			
	黃鳥			
	晨風			
	無衣			
	渭陽			
	權輿			
陳風	宛丘			
	東門之枌			
	衡門			
	東門之池			
	東門之楊			
墓門				

詩經 總目次		五經百篇	二經英華	六經常覽
陳風	防有鵲巢			
	月出			
	株林			
	澤陂			
檜風	羔裘			
	素冠			
	隰有萇楚			
	匪風	○		○
曹風	蜉蝣			
	候人			
	鴈鳩			
	下泉	○		○
豳風	七月	○		○
	鴟鴞			
	東山	○	○	
	破斧			
	伐柯			
	九罭			
	狼跋			
小雅	鹿鳴	○		○
	四牡		○	
	皇皇者華	○	○	
	常棣		○	
	伐木	○	○	
	天保	○	○	
	采芣			
	出車	○	○	
	杖杜			
	魚麗			
	南有嘉魚			
	南山有臺	○	○	
	蓼蕭		○	
	湛露		○	
	彤弓			
菁菁者莪				

詩經 總目次	五經百篇	二經英華	六經常覽
六月	○	○	
采芑			
車攻	○	○	
吉日	○	○	
鴻雁			
庭燎			
沔水			
鶴鳴	○	○	
祈父			
白駒	○	○	
黃鳥			
我行其野			
斯干	○		
無羊	○		
節南山			
正月			
十月之交			
雨無正			
小旻			
小宛			
小弁			
巧言			
何人斯			
巷伯			
穀風			
蓼莪		○	
大東	○		
四月			
北山			
無將大車			
小明			
鼓鍾			
楚茨	○		○
信南山	○		
甫田	○	○	

詩經 總目次		五經百篇	二經英華	六經常覽
小雅	大田	○	○	
	瞻彼洛矣			
	裳裳者華			
	桑扈			
	鴛鴦			
	頰弁			
	車轄			
	青蠅			
	賓之初筵	○		○
	魚藻			
	采芣			
	角弓			
	苑柳			
	都人士			
	采芣			
	黍苗			
	隰桑			
	白華			
	綿蠻			
	瓠葉			
	漸漸之石			
苕之華				
何草不黃				
大雅	文王	○		○
	大明	○	○	
	綿	○	○	
	棫樸	○	○	
	旱麓	○		
	思齊	○	○	
	皇矣	○		
	靈臺	○	○	
	下武			
	文王有聲			
	生民	○	○	
	行葦	○	○	
	既醉	○		

『五經百篇』 수록 『詩經』에 대한 연구

詩經 總目次	五經百篇	二經英華	六經常覽	
大雅	鳧鷖			
	假樂			
	公劉	○	○	
	洞酌			
	卷阿		○	
	民勞			
	板			
	蕩			
	抑	○	○	
	桑柔			
	雲漢		○	
	崧高	○	○	
	烝民	○	○	
	韓奕	○		
	江漢	○		○
	常武			
	瞻昂			
召旻				
周頌	清廟		○	
	維天之命	○	○	
	維清		○	
	烈文		○	
	天作	○	○	
	昊天有成命		○	
	我將			
	時邁			
	執競		○	
	思文	○	○	
	臣工			
	噫嘻			
	振鷺			
	豐年	○	○	
	有瞽			
	潛			
離				
載見				

詩經 總目次		五經百篇	二經英華	六經常覽
周頌	有客			
	武			
	閔予小子			
	訪落			
	敬之	○		
	小毖			
	載芟			
	良耜			
	絲衣			
	酌		○	
	桓			
	賚			
般				
魯頌	駟	○	○	
	有駟			
	泮水	○	○	
	閟宮	○	○	
商頌	那	○		
	烈祖			
	玄鳥			
	長發	○		
	殷武			
計		67	57	8